2026년
개정증보판
내용 전면 개정



정체성 전쟁

참된 정체성을 찾는 길

정체성 전쟁

Identity Wars

참된 정체성을 찾는 길

에이드리언 이벤스
Adrian Ebens

Copyright © 2023 Adrian Ebens

이전 판을 개정하여 펴냄

ISBN-13: 978-1-57258-668-0

Library of Congress Control Number: 2011903965

Duracell®은 Procter & Gamble Co.의 상표이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Duracell®을 언급하는 것은 오로지 설명을 위한 것이며, Duracell® 브랜드나 그 모회사인 Procter & Gamble의 보증이나 제휴를 뜻하지 않습니다.

따로 표기하지 않은 성경 인용은 개역한글판을 따랐으며,

책의 논지를 떠받치는 일부 구절은 새번역을 따랐습니다.

펴낸 곳: 마라나타 미디어

Fatheroflove.info

adrian@identitywars.org

차 례

제1부. 두 나라
1장 듀라셀 나무 2
2장 생명의 샘 11
3장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24
4장 가족 왕국 30
5장 가족의 위기 35
6장 지상의 지옥 42
7장 하늘의 생명줄 55
8장 두 왕국의 비교 64
9장 바벨론의 심장 70
제2부. 하나의 운명
10장 듀라셀의 사슬을 끊다 81
11장 하늘의 문을 열다 93
제3부. 아들 됨으로 돌아가는 여정
12장 듀라셀로 움직이는 삶 101
13장 하늘로 오르는 계단 107
14장 같은 신들, 다른 이름들 114
15장 어떻게 읽으십니까? 124
16장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130
17장 바벨론의 멸망 136

이 책을 바칩니다

꼿꼿이 서는 법과 언제나 정직할 것과
시작한 일은 끝맺을 것과
불의를 결코 그냥 두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아버지 아벨께

꿈꾸기를 멈추지 말 것과 창의적일 것과
자연을 사랑할 것과 너그러울 것을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에벌린께

어린 시절의 여정을 함께 걸어 주었고
재치 있는 말로 자주 저를 웃게 해 준
사랑하는 누이 캐런에게

제1부. 두 나라

– 잃어버린 정체성

1장 듀라셀 나무

방은 어슴푸레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었고, 인기 가수의 사진과 운동선수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갈망하던 세계를 내다보는 창 같은 것이었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교과서 몇 권이 놓인 책상이 있었지만, 그 책상의 주인공은 작지만 소리는 우렁찬 오디오였습니다. 야망과 소란과 꿈, 그 모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십대의 방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걸린 싸움이었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어 왔는지, 그 믿음이 송두리째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저는 벽에 붙은 포스터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번, 제가 뿌린 대로 거두는 순간이 오면 저 포스터들이 제 마음을 딴 데로 돌려 주었으니까요.

공기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줄 무언가를 저는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 운동을 잘한다는 것, 말을 잘한다는 것—그런 것들을 붙잡아 보았지만, 그날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역겨운 먹구름이 내려앉아 제 야망을 하나씩 짜냈습니다. 그 구름은 마음속 소중한 방들의 문을 걷어차 열고 그 안의 보물을 훔쳐 갔고, 마침내 가장 깊고 거룩한 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방식으로 어머니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싫었고 달라지고 싶었지만,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 * *

우울증. 우울증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렇게 밝힙니다.

> 우울증은 전 세계에서 건강을 해치고 장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재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며,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만 18퍼센트 이상 늘어났다.[1]

2011년에 나온 다음 통계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헤아려 보십시오.

- 해마다 100만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40초에 한 명, 하루에 3천 명입니다.
-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한 명당 적어도 스무 명이 시도합니다. 하루에 6만 명입니다.
- 전 세계 자살률은 지난 50년 동안 60퍼센트 높아졌으며, 주로 산업화된 나라에서 그러합니다.

· 전체 자살의 60퍼센트가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와 일본이 전체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합니다.[2]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의 무엇이 그토록 사람을 짓누르기에, 수백만 명이 또 하루를 살아 내기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까?

필립 데이(Phillip Day)는 그의 책 『마인드 게임』(The Mind Game)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 예전에는 가족들이 곁에 모여 앉아, 우울에 빠진 식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고 마음을 다잡아 주었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정이 조각나고, 종교가 하찮게 여겨지고, 21세기의 분주한 삶 때문에 가족이 서로 흩어지면서, 예전에 마음 써 주는 친척이나 동네 목회자가 감당하던 상담의 자리를 정신분석이 대신 차지해 버렸다. 나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고 굳게 믿는다.[3]

필립 데이는 세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가정의 해체. 둘째, 종교의 격하. 셋째, 21세기의 분주한 삶으로 인한 가족의 흩어짐. 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정의 해체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데이비드 밴 비마(David Van Biem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전의 어느 세대와도 다른 세대가 어른이 되었다. 수백만 명이 깊은 슬픔을, 그것도 너무 이른 나이에 겪은 세대다. 그들은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의 맨 앞줄일 뿐이다.[4]

짐 콘웨이(Jim Conway)는 그의 책 『법적·정서적 이혼 가정에서 자란 성인들』(Adult Children of Legal and Emotional Divorce)에서, 법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가정이 무너진 여파를 겪은 수천 명의 아픔과 상실을 생생하게 그려 냅니다. 그가 짚어 낸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는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되묻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5]

이 물음들은 인간이 겪는 곤경의 뿌리, 곧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로 곧장 파고듭니다. 나를 정말로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는가? 나에게 값어치가 있는가? 이런 물음이 어쩌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토록 깊이 박히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하와는 금지된 나무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와는 궁금했습니다. 열매는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그녀를 손짓해 부르는 듯했습니다. 그때 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탄이 때를 놓치지 않고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와를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논쟁과 논리의 영역에서 하와는 사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와가 한 번도 겪어 본 적 없는 무기, 곧 속임과 어둠까지 더해집니다. 하와가 입을 열어 상대해 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순간, 승부는 순식간에 끝나 버릴 것입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되풀이함으로써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깊은 곤경에 빠진 뒤였습니다. 자신의 호기심에 사탄의 첫 수가 겹치면서, 하와는 이어질 그 놀라운 한마디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좋은 뜻으로' 벌이는 토론에서 상황을 그런대로 잘 이끌어 가고 있다고 느끼던 중에, 상대가 전혀 엉뚱한 데서 무언가를 툭 던져 온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 머릿속에서 맞물려 잘 돌아가던 톱니바퀴 사이에 렌치를 던져 넣어 그대로 멈춰 세우는 말 말입니다. 그 말이 딱히 심오하거나 깨달음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하필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그렇게 거리낌 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먹잇감이 얼어붙은 것을 보고, 무섭도록 정확하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몇 구절은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 한 번 깜박이면 놓치고 맙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 준 그 생각 속에는, 오늘날 아담의 모든 자손을 괴롭히는 저주의 씨앗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토록 해방처럼 들리는 생각이,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비참함과 어둠 속에 묶어 두는 쇠사슬의 재료였습니다. 조금 지나친 말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을 함께 풀어 가면서, 그 열매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저 끈질긴 물음들을 낳는지 살펴봅시다. “나를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가?”

제가 여덟 살쯤이었을 때, 여동생이 인형을 하나 선물받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우유까지 먹는 인형이었습니다. 등에 건전지 두 개만 넣어 주면 그때부터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동생은 그 인형을 가지고 몇 시간이고 놀았습니다. 저는 우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개에게 던져 주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동생이 한 시간을 울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등에 건전지 두 개를 꽂았을 뿐인데 그 인형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 주려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와야,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쓸 것 없다. 네 안에 생명이 있다. 네 마음대로 해도 아무 탈이 없다. 네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나무로 돌아와 배터리만 충전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생후 열여덟 달 된 아기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저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뒷마당의 정원 요정 인형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안에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저를 살리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준대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언젠가 또 봬요."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생각이,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기대어 살던 그들의 감각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 밑바닥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녔던 값어치도 흐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기대던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간단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안에 힘이 있으니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이 생각을 단 한순간이라도 받아들이면, 그 즉시 하나님과 누리던 그 복된 사귐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립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그 운명의 나무로 돌아갑시다.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열려 더 높은 차원의 존재가 되리라는 사탄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네 안에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는 손에 넣기만 하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 힘 있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세기 3장 4,5절에서 사탄은 자신의 새 유토피아 왕국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본격적인 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내민 왕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힘과 만족을 약속합니다. 이 왕국은 두 가지 핵심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1. 네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너는 바깥의 어떤 후원자나 권위에도 전혀 매이지 않는 존재다.
2. 우리 주변에는 사람과 물건과 자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손에 넣거나 그것들과 엮이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깨어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선악과나무를 통해 사탄이 내민 것은 '건전지로 돌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깥의 후원자도 권위도 필요 없는 삶 말입니다. 이 장의 제목을 '듀라셀 나무'라고 붙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 인생철학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영원히 닳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열매 안에 그들을 두렵고 죄 많고 반항적으로 만드는 독이 들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창세기 3:6) 했다고 말합니다. 독은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독은 그의 왕국의 원리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행동할 때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지닌 독을 그대로 삼켰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나무에서 먹고 있으며, 그 결과 지독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리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곧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

1. http://www.who.int/mental_health/management/depression/en/
2. https://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234219.php
3. Phillip Day, Introduction - http://www.campaignfortruth.com/Eclub/100702/depressionandsuicide.htm
4. David Van Biema, "Learning to Live with a Past that Failed," People, May 29, 1989, p 79.
5. Jim Conway, Adult Children of Legal or Emotional Divorce, (Monarch Publications, 1990) p 53.

2장 생명의 샘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예산 작업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습니다. 실은 아흔 개나 되는 예산안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정된 수입을 야심 찬 관리자들에게 갈라 배분하는, 여간 예민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목표를 이루겠다며 더 큰 몫을 원하고, 기대하고, 심지어 요구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을 밀어내 보려고 애쓰던 참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다,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어깨에 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엄마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말이 쇠망치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떨기 시작했고 심장 박동이 순식간에 두 배로 뛰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지면서 근육이 굳었습니다. "사고요?" 수화기를 겨우 붙들고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데요?" "많이 심각하다, 아들아."

그 순간 저는 전화기를 뚫고 건너가 아버지를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차로 열두 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계셨고, 저는 아침 비행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빙빙 돌았습니다. 충격과 두려움과 멍한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어머니를 데려가지 말아 주세요."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잔잔함이 찾아왔고

거의 평온하다 할 만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일상의 사소한 일들로 흘러가면, 두려움과 무력감과 충격이 다시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음악 레슨을 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두 방향 차로 사이에 십 미터 폭의 화단이 있는 왕복 도로였습니다. 언덕 마루를 넘으며 앞차를 앞지르던 순간까지가 어머니가 기억하시는 전부입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통제를 잃고 십 미터 화단을 가로질러 어머니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엔진이 격벽을 밀고 들어왔고, 동시에 운전대가 어머니의 얼굴을 그대로 강타했습니다. 어떤 까닭인지 바로 그 순간 좌석이 부러졌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즉사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일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팔과 다리가 부러져 있었고 얼굴 왼쪽이 온통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실려 들어갈 때, 마침 근무를 막 마치려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여덟 시간 동안 어머니의 생명을 붙들고 싸웠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긴 끝에 어머니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의사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아직도 말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는 열여섯 시간을 내리 일하고서도 새벽 세 시에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위중하지만 안정되었다고 알려 주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의료인의 실력과 강인함과 친절함을 그처럼 환하게 보여 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며칠 뒤 저와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모습을 본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기뻤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속도에 놀랐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실 것이고 어쩌면 걷지도 못하실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 곁에 계셨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내 로렐이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보다가 저를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기록에는 의료진이 어머니를 잃겠다고 판단한 지점이 뚜렷이 남아 있었고, 그 직후 갑자기 모든 활력 징후가 되살아나 안정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붙드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명 주시는 능력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는 걸어 다니십니다. 그리고 가끔 어머니가 피아노를 치실 때면, 확실한 죽음에서 어머니를 건져 주신 예수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제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점의 의심도 남기지 않습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 그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골로새서 1:16,17**

우리가 보거나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아가 볼 수 없는 것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1] 마지막 문장의 표현을 눈여겨보십시오.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온 우주를 붙들어 하나로 유지한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같은 진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26)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시대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27)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24-28**

여기에는 우리 삶에 친밀하게 관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큰 그림에서 시작해 점점 개인적이고 친밀한 차원으로 내려옵니다.

1.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때와 자리를 정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3.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문제의 핵심으로 곧장 들어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산다면,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 이것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의존하듯,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함의가 대단히 크므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심장이라는 놀라운 기관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온몸에 피를 돌리는 펌프입니다. 놀라운 것은 심장의 박동이 심장 바깥의 무엇인가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장 근육은 신경계의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를 두고 내재적 조절 체계라고 부릅니다. 어느 해부학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도계는 심근 섬유를

수축시키는 전기 자극을 만들어 내고 분배하는 특수한 근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3] 이 근섬유가 특수한 것은 분명합니다. 신경계에서 오지 않는 전기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해부학 교과서 어디에도, 이 심근 섬유가 어떻게 그 전하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특수하다고 하고 내재적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길이 갈라집니다. 성경은 그 에너지가 하나님께로부터 곧바로 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삽니다." 사도행전 17:28. 그러나 사탄은 그것이 우리 안에 본래부터 있는 것이며 우리가 소유한 생물학적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창세기 3:4.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이지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간 노선을 택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태엽 시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태엽을 감아 놓고 그냥 돌아가게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듀라셀 건전지를 만들어 우리 안에 넣어 두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매일 매시 매분 매초, 그 1000분의 1초까지도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동적으로, 아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전하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에는 인간을 몹시 불편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만 지금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를 믿든지, 아니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를 믿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만만치 않은 이야기이지만, 여기까지는 인간 존재의 육체적인 부분을 다룬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정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성구들을 보십시오.

>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2,3**

>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3)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4)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5)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리라 **출애굽기 31:1-5**

성경은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으로 드러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은 인간이 스스로 지혜와 지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은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이 그 한 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장인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보이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흔히 '타고난 사람', 곧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잠시 어느 연주회 한가운데로 가 보겠습니다. 무대 위에 당당히 놓인 그랜드 피아노 건반 위로 재능 있는 젊은 여성의 손가락이 오르내리자 청중은 숨을 죽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피아노는 그야말로 노래를 합니다. 대가의 손길입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닫고, 우리는 끝이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더 듣고 싶지만 곡은 끝나고, 우아함과 기품에 열정과 강렬함이 어우러진 연주에 압도된 청중이 박수를 터뜨립니다. 젊은 연주자는 인사를 하고 찬사의 향기를 들이마신 뒤 무대를 내려옵니다.

여기서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흔한 장면에는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청중은 사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같은 찬양을 불러야 마땅합니다. 박수는 그 재주와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연주자의 마음은 자신에게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성공에 들뜨지도 않고 실패에 낙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성공했을 때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실패했을 때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에 듀라셀 나무의 저주가 있습니다. 등에 엔진을 지고 활공하는 동력 패러글라이딩으로 넓은 하늘에 오르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4]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그 성공을 우리 자신이 만들어 냈다고 믿을 때 느끼는 해방감은 수천 피트 상공에 올라 아래로 펼쳐진 장관을 내려다보는 짜릿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높이 오르면 산소가 부족해 의식을 잃거나 엔진이 멈추어 땅으로 곤두박질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거짓말 속으로 더 높이 오를수록, 땅에 부딪힐 때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듀라셀 나무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 열매를 한번 맛보고 나면 오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고, 마지막 결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전 세계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5]

듀라셀 나무의 열매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높이까지 오르고 싶은 욕망을 만들어 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먹을수록 오르려는 욕망은 커지고, 추락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부딪혀 보셨습니까? 앞으로 몇 번을 더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육체적 의존과 정신적 의존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존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이니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길이 좀 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1서 4:8.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5:13. 이 사상은 갈라디아서에서 크게 확장됩니다.

>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3)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22,23**

이 본문의 함의는 숨이 멎을 만합니다. 잠시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열거된 성품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써 생깁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인내도 친절도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호숫가 공원을 걸으며 이 성경적 진리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문득 한 어머니가 딸이 탄 그네를 밀어 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은 함께 웃고 있었고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을 분명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딸에게 느끼던 사랑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딸에게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려는 그 마음은 어머니의 심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머니에게 주어졌고, 어머니가 그것을 택하여 표현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그것은 사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의 영에 응답하여 그것을 표현했기에 그 사랑이 어머니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장 참된 의미에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말로 들리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저는 설교와 세미나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청중의 반응을 보는 것이 늘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들의 얼굴은 제가 인류의 근간을 공격하기라도 한 듯한 표정입니다. 지금까지 불린 수백만 곡의 사랑 노래와 결혼식 제단에서 "당신을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한 수십억 번의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린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지 않으시면, 그 약속은 단 하나도 지켜질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성품을 패러글라이더에 태워 봅시다. 어째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사랑에서 '떨어져' 땅으로 곤두박질칩니까? 사랑이 자기 영혼에서 생겨난다고 믿는 사람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배우자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나에게 맞는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느낌을 되찾아 줄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듀라셀 신용카드가 한도에 이르렀고, 이제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진심으로 맹세했던 성실한 남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그가 어느 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정욕이 뒤섞이고, 자신의 진실함마저 의심스러워집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물러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행동한 데서 오는 죄책감이

자기도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사랑이 계속 흘러나오게 할 수 있으리라 여겼지만, 이제 패러글라이더는 실속하여 이륙했던 그 자리로 추락하고, 결혼은 끝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결혼의 기쁨이 그토록 붙잡기 어려운 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구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우자를 향한 사랑을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그 사랑을 돌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13,14**

주

1.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14
2. 요한복음 15:5
3. Gerard Tortora and Nicholas Anagnostakos, Principles of Anatomy and Physiology, (Harper and Row Publishers, New York, 1984) p 463.
4. 동력 패러글라이딩(파라모터링, PPG)은 조종사가 등에 엔진을 메고 그 추력으로 패러글라이더를 띄우는 초경량 항공 활동이다. 바람이 없는

날에도 평지에서 조종사 혼자 이륙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위키백과

5. http://www.who.int/mental_health/management/depression/en/

3장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저희는 고속도로를 무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로렐의 진통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곧 첫아이를 만나게 될 참이었습니다. 분만실로 미끄러지듯 들어서자 간호사가 저희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두 분 표정이 너무 좋으시네요. 좀 걷다 오세요.” 그 말에 들뜬 기분이 살짝 가라앉았습니다. 사십오 분 뒤에 돌아왔을 때 로렐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삼십 분이 지나자 저희는 분만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리 부를 말이 없습니다. 산고(産苦), 그것도 아주 혹독한 산고였습니다. 산전 교실에서 배운 호흡법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정신을 붙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통은 정면으로 달려오는 화물열차처럼 몰아쳤습니다. 하나를 겨우 넘기면 다음 것이 곧바로 덮쳤습니다. 마침내 열한 시간 만에 저희는 첫아들 마이클을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 직후에 찍은 로렐과 저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아내는 마치 하루 일과를 마친 사람처럼 환하게 웃으며 앉아 있고, 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는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 전에 없던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정말 고된 일입니다.

웃음이 그치시면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아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정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었고, 그 사실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끝났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을 처음 품에 안은 그 순간은 영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다보자 아이도 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경이와 놀라움 속에 아이를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데, 문득 깊은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저와 똑같은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맞서고, 순종보다 반역으로 자연히 기우는 본성 말입니다. 그 의지를 이끌어 주고, 참된 사랑과 친절과 이타심과 순종의 훈련으로 길러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제 친구가 되어 줄까? 무엇인가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를 갈라놓지는 않을까?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아들과 저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가깝게 지내게 해 주시고, 이 아이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제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간절함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 년 뒤 어느 안식일이었습니다. 저는 삶의 분주함에서 멀리 떠나 조용히 걸으며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태어나던 날로 마음이 돌아갔고, 결코 이 아이와 갈라서고 싶지 않다던 그 절실한 마음과 아이가 저를 참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던 소원을 다시 살아 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해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한 일과 잘못한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스스로도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제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까이 오셔서 저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침내 저는 부르짖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무척 사랑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무엇도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갈라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아버지께서는 아파하시며,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성경의 몇몇 구절로 인도를 받았는데, 그 말씀은 제 눈을 활짝 열어 주었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결코 떠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는 아주 선명한 창이 있습니다.

>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7)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가복음 12:6,7**

예수님께서는 그분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 안에 그 나라에서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는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값있게 합니까? 무엇이 그를 값어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까? 이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이 본문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 가치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는 사람을 아직 한 명도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새 두 마리의 값을 사람의 셈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참새들은 값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두어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참새는 한 마리도 없다.” 하나님께서 참새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참새는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확장하여,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우리를 얼마나 더 생각하시는지를 견주십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 놓고 계신다.” 이보다 더 가깝고 사적인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 대해 너무 알고 싶은 나머지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값어치와 의미가 어떻게 생기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며, 우리가 삶을 누리도록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풍성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가치함과 우울의 감옥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믿을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5**

우리의 값어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사랑의 생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 줍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생각은 다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만큼만 실제가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며 저는 이 소식이 무척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값어치를 의심하고 싶어질 때마다, 참새를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4장 가족 왕국

따뜻하고 습한 날입니다. 방 안에는 잔칫날 같은 기운이 감돕니다.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냄새가 오늘 입이 호강하겠다고 미리 알려 줍니다. 옛일을 이야기하는 사이사이 웃음이 터집니다. 설레는 놀라움과 사랑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선물이 오갑니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간식을 정신없이 먹고, 할아버지는 그새 이만큼 컸다며 우리를 올려다봅니다. 조부모님 댁에 갈 때면 흔히 이런 시간이 펼쳐졌습니다. 가족의 시간이었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이어지고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크게 벌어지는 우울과 무가치함의 아가리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는 것으로, 가까운 가족이 있다는 느낌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 주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있어도 되는 자리, 실수해도 용서받는 자리, 그저 함께 삶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그림 하나를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마디로 “하나님이시여”라거나

“거룩하신 폐하여”라거나 “왕이시여”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뻔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사실이 갖는 함의는 대단히 넓습니다.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 그 함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의 세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셨습니다. 물려받으신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이셨고, 시내산에서 우레같이 말씀하신 여호와이셨으며, 여호수아를 이끌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1-4. 그리스도의 세례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늘 그러하듯)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소개하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주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고, “이는 너희의 왕이니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통치자의 언어가 아니라 가족의 언어로 그분 아들의 정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뜯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 정체성

2. 내가 그를 기뻐한다 = 값어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맺은 관계가 우리의 의미와 값어치를 정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나라와 정면으로 대비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평가하는 성과와 성취가 의미와 값어치를 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알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고 복을 끊임없이 부어 주시며,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값어치를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값어치는 하나님 자신만큼이나 견고합니다.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관계는 한결같고 우리의 값어치는 안전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의 값어치는 2001년 9월 11일 이후의 주식 시장만큼이나 안전합니다. 극심하게 출렁이고, 전혀 안정되지 않으며,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공하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격려와 지지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시고, 절망과 낙심과 무가치함과 죽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분 나라의 심장에 관계를 지키는 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 법은 두 가지 관계를 다룹니다. 하나는 우리와 하늘 아버지 사이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자매인 우리 서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38)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되는 계명이다. (39)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40)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마태복음 22:37-40**

이 두 큰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과 값어치를 지키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계명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입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자기 값어치를 잃지 않게 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십계명은 관계라는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그 관계들을 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정체성이 무너지면 죽음이 우리를 껴안으려 다가옵니다. 죄의 삯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의적인 데가 조금도 없습니다. 죄는 (성경이 요한1서 3장 4절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값어치를 파괴합니다. 정체성과 값어치가 사라지면 영혼은 죽음을 갈망합니다. 오늘날 우울과 자살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지 보이십니까? 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과 값어치를 훔쳐 가는 강도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없애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1.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입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3.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값어치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에 근거합니다.
4.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 위에 세워진 관계의 나라입니다.
5. 이 관계들은 십계명으로 지켜집니다.
6. 계명을 어기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값어치를 파괴합니다.

5장 가족의 위기

얼굴만 보아도 그가 어떤 충격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애쓰고 있었지만 눈 밑의 그늘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내와 별거 중입니다." 그가 아프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후회가 그를 온통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가 마주한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그가 불쑥 내뱉었습니다. "아이들을 못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고, 저는 그 아픔이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를 도울 수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디가 위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거와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땅을 지나 본 사람만이 그 말 뒤에 있는 감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쪽이 겪는 충격과 분노와 슬픔은 흔히 배우자의 죽음을 겪는 것에 견주어져 왔습니다.[1] 이혼의 참혹한 현실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 전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2]

물론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때만이 아니라 남은 평생 동안 아이의 마음을 지나가는 파괴적인 감정들은 결코 온전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짐 콘웨이는 이혼 가정에서 자란 성인 수백 명을 조사했는데,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불행하다고 느낌	72%
무력하다고 느낌	65%
외롭다고 느낌	61%
두려웠음	52%
분노했음	50%
버림받았다고 느낌	48%
개인적으로 거부당했다고 느낌	40%
무가치하다고 느낌	30%

어린 시절에 이혼을 겪은 이 성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남았습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구함	58%
과거의 일부를 차단해 버림	54%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함	53%
자신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김	47%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과잉 반응함	42%
여전히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음	40%[3]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말라기 2:16 하신 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일어났든, 누가 누구를 떠났든, 가족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모두에게 참혹한 일입니다. 가족 관계가 깨어질 때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첫 피조물 아들이 그분께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가족은 위기로 찢겨 나갔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두 왕과 두 왕국 사이의 전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가족이 찢겨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처음 지으시고 갓 태어난 아들을 부드럽게 품에 안으시던 순간을 그려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에게 당신의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셨고, 그분 가족 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섬기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분노와 반역의 말을 뱉어 내고 있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의 그늘 속을 오가며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의 마음까지 독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슬픔이 어떠했을지 그려지십니까? 그토록 완전하게 지어진 루시퍼가 이제 미움과 살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실체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없애기를 바랐습니다.

아들 루시퍼를 잃은 하나님의 상실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무엘하 18:33

다윗의 아름답고 잘생긴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가 아들의 군대를 무찔렀고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대신 다윗은 반역한 아들을 잃고 울었습니다. 가족이 찢겨 나갈 때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사람의 정체성과 값어치는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 하늘 아버지와 맺은 관계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루시퍼가 그 관계 밖으로 걸어 나갔을 때, 그는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며, 예상치 못한 어두운 감정의 수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반역하기 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그는 차분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저버린 뒤에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루시퍼야, 너는 누구냐?" 그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더 이상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것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스스로 만들어 내려는 어떤 정체성도,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끊음으로 생긴 그 공허와 상실감을 결코, 결코 채우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고 여러 번 생각했지만, 교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그토록 뻔뻔한 배은망덕과 공공연한 반역을 저지른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의 사탄이 된 루시퍼는 홀로 서 있습니다. 그를 안아 줄 이가 없고, 돌아갈 부모가 없으며, 집이라 부를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사탄을 움직이는 것은 무가치함에서 나오는 온갖 감정입니다. 불안, 두려움, 공허, 질투, 교만, 자기변명, 오만, 격노, 분노, 그리고 남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더 이상 어디가 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정의해야 했고, 속에서 느끼는 그 공허와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어떻게든 덮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아이가 그러하듯, 사탄도 불안과 두려움과 광기, 그리고 누구에게서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절박한 갈망의 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관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 공허를 채우려고 그의 뒤틀린 본성은 예배받고 흠모받고 사랑받기를 갈망합니다. 그 아픔과 외로움과 무가치함을 없애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야말로 무엇이든 말입니다. 이 서글픈 상태는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어느 노래에 놀랍도록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노래는 스스로를 텅 비워 무게 없이 놓여나고 싶다는 갈망을 노래합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과 하루를 버텨 낸 끝의 탈진, 그리고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슬픔을 노래합니다. 사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합니다.

사탄은 관계를 값어치의 근거로 삼기를 거부했으므로, 관계 위에 세워진 나라를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과 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한다면 그런 나라는 결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 안의 힘'이라는 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의 힘으로 축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대로 쓰고 남용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권력과 성과와 쾌락 추구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중심 주제는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만 챙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지탱하는 생명력이 인격을 지니신 분의 것이기 때문이며, 언젠가 그분을 거부한 죄책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생명을 짓눌러 꺼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정체성을 거부한 데서 오는 아픔과 상실을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기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잠언의 진리를 배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덴동산으로 돌아가 보면, 겉으로 사탄은 하늘의 정부를 뒤엎으려는 교활하고 영리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공허와 불안으로 가득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든 만들어 내고, 점점 넓어지는 절망의 심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마음입니다.

주

1. Nelly Zola and Renata Singer, True Stories from the Land of Divorce, (Pan Macmillan, Sydney, 1995) p 2.
2. 위의 책.
3. Conway, p 31.

6장 지상의 지옥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 해가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아주 단단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조금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쌓이고, 마침내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한참을 두드려 그 뚜렷한 벽을 넘고 나서야,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 친구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그 때문에 친구가 여러분의 행동을 도무지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치를 따지면 이 오해쯤은 금방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리에 맞게 설명하려 하면, 이번에는 뻔뻔하게 변명을 지어낸다는 비난까지 듣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 감정 가운데 어느 하나가 여러분을 덮칩니다. 상처, 아픔, 분노, 심지어 참담함입니다. 친구가 여러분에게는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변호해 주기는커녕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터뜨린 분노든 지켜 낸 침묵이든, 그 '친구'에게는 자기 판단이 옳았고 들은 말이 다 사실이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상처에 모욕까지 더해지는 셈입니다.

앞의 두 문단을 읽으시는 동안,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아픈 기억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되풀이되어 온 장면입니다. 저 역시 이 글을 쓰면서 제 일을 떠올리다가 멈추어 다시 묻습니다. "왜일까?"

우리 대부분은 이와 비슷한 거절의 흉터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아담과 하와가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셨는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낯선 자의 말 한마디가 가장 가까운 벗들을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낯선 자'와 말을 주고받게 된 딸 하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장면을 자주 그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쏟으신 그 모든 시간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표들이 있었는데, 하와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안전에 붙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뱀을 통해 들려오는 사탄의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천사를 보내어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 지점에는 답해야 할 "왜"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다 다룰 지면도 시간도 없고, 사실 어떤 물음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뵙기 전에는 온전히 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는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선택이 선택을 허락한 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조차 선택할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늘 끼어드시는 분이라면, 실제로 그들에게는 선택이라는 것이

없는 셈입니다. 가르치고 바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허락한 이의 침묵이 그가 해 온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모든 말을 참되게 만드는 때도 옵니다. 선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가 씨름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일러 주었는데도 아이가 끝내 우리를 거슬러 선택한다면, 거절당하는 아픔이 두려워 아이를 막아설 것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슬퍼하면서 우리를 거절할 자유를 허락하겠습니까? 어느 부모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사랑의 힘을 옷 입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귀한 딸 하와가 사랑하는 아들 아담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어 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쌓인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딸을 잃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도 건지시려고 끼어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사랑은 깊이 슬퍼하면서도 잠잠히 기다렸고, 그분이 참으로 자유와 자유로운 선택의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허락하실 것이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안전한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늘의 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태평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 못지않게 시험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면, 세상 창조 이전에 그분의 아들이 하신 약속,[1] 곧 세상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그 약속이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가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실 것이며, 그들의 죄책을 자신이 짊어지시고 그것이 그들 대신 자신의 생명을 짓눌러 끄도록 내어 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아시면서 하와가, 이어서 아담이 그분을 거슬러 선택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어떤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랑의 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을 대하실 때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짓된 생각을 영원히 지워 버립니다.

1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받아들인 철학을 살펴보았고, 앞 장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며 우리가 이룬 것으로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사탄이 지어내게 만든 비극적인 감정의 뒤엉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위장에서 그 열매가 아직 소화되고 있는 동안에도, 무가치함과 죄책의 역겨운 구름이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감싸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쁜 관계를 닫아 버리고 있었습니다. 듀라셀 나무의 저주가 그 음험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담과 하와는 죄책과 두려움에 삼켜졌습니다. 그들도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체성과 값어치를 잃었고, 무엇을 해도 그것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관계를 깨뜨린 것은 그들이었고, 그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아도 자명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렸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킬 힘은 잘못하지 않은 쪽에 있습니다. 잘못한 쪽은 그 관계에서 어떤 권한도 이미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2장에서 살펴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그 근원에서 스스로를 끊어 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고력은 이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쓰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사탄과 완전히 한 편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는 거짓말의 가면을 벗길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짓 이론으로 그들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악하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며 아무 값어치도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과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과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아들 안에 드러난 그분의 성품을 참으로 아는 것입니다.

낯선 자가 가장 가까운 벗들을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던 그 음성이 이제는 그들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숨게 만듭니다. 사탄의 프로그래밍이 효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어느 날 퇴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와 함께 만들어 온 그 행복한 의식을 기대하며 집으로 갑니다. 매일 오후 아이는 현관문을 뛰어나오며 "아빠, 아빠" 하고 부르고는 품에 안겨 다정하게 안깁니다. 그런데 집에 다다랐는데 사랑하는 아이가 마중을 나오지 않습니다. 의아해하며 현관문을 열자 겁에 질린 비명이 들리고, 작은 발소리가 정원 쪽으로 급히 달아나 숨습니다. 무엇인가가 그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사랑이 있던 자리에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에 아이가 달아나는 것을 반길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픕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주에서 가장 사랑이 많고 너그럽고 오래 참으시며 자유를 사랑하시는 분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난제 앞에 서십니다. 이제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다가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제는 악한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인 지금,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할 만한 안정감도 값어치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죄책과 불안에 사로잡힌 그들은 도리어 뻣뻣해졌습니다. 정직하게 생각할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가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문제를 마주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네 정체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육적인 것은 언제나 영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몸을 숨긴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너무 두려워 보이는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고 속임과 거짓으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된 해결책을 가져다주시려고, 그들이 문제를 진단하도록 도우려 하십니다.

아담은 자기가 벌거벗었기에 두려웠다고 대답합니다. 이 고백은 창세기 2장 25절에 비추어 볼 때 흥미롭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담은 열매를 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부쉬)에는 혼란스럽다, 당황하다, 실망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담은 혼란과 죄책과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웠고,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죄책을 느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아픔이 어디에서 가장 깊은지 짚으려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네게 말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들은 거짓말의 출처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누가 너로 나에게서 달아나게 하고 있느냐? 누가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곧바로 물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면 되는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찬 분이고 자신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둘에 둘을 더하고서 예순넷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아담은 그렇다고 하면 혹독하게 벌을 받으리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두 번 벌을 받으리라 여깁니다. 열매를 먹은 것으로 한 번, 거짓말한 것으로 또 한 번 말입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여긴 아담은 자기를 변호하고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그 책임을 하와에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떠넘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닥치든 함께 맞서겠다고 다짐하던 남편이 첫 고비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하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그려지십니까? 죄는 다른 사람을 돕고 떠받치려고 자신을 내어 주는 영웅을 결코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죄는 언제나 각자도생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의 반응을 움직이는 것은 죄책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며, 여기에 상당한 양의 교만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게 된 그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 주지 않는다"는 철학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가 가져온 큰 비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에게 그가 품은 아버지의 상이 거짓이며 그가 무가치하지도 어리석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사고할 힘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어떻게 자기 처지에 대한 참된 판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뿐인데 아담은 그 근원에서 스스로를 끊어 냈습니다. 설령 아담이 생각한다 해도, 진리 비슷한 것이면 무엇이든 격렬하게 밀어내는 죄책과 교만의 뒤섞임에서 그 생각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자신을 위하여 잘못을 지적하시는 것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그의 불안이 그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서 스스로를 갈라놓은 뒤에는 되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절망적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훗날 그 자손들이 악한 천사들과 손잡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절박한 동맹에 이르게 할 씨앗이 놓였습니다.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도 그분의 나라와도 아무 상관 없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지실지 모릅니다. “잠깐, 그건 좀 지나칩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미워했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그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모든 선함과 사랑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진실하게 읽을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진실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아주 분명합니다. 다음 구절들을 보십시오.

>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7**

>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10-12**

>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예레미야 17:9**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본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합니다. 본래 상태의 우리 마음은 반역적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경험에서도, 이 이야기를 나눈 많은 사람의 경험에서도, 이 진리에 대해 격렬한 저항의 기운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미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 저항은, 아담이 자기 실패를 책임지는 대신 하와와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께 보인 저항의 메아리입니다. 아담의 불안이 우리의 유산이며, 우리도 그가 견디지 못한 진실을 그만큼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이 생각에 저항하는 자신을 보신다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안에서 안정되어 있다면 이런 말들은 조금도 마음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의 불안과 공허가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며,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이 하나님께 적대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내가 선한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습니다. 애쓰기를 그만두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악한 본성이 튀어나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하게 했을 때 스스로를 두들기기를 그만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으로 미루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오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과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 그리고 그 자손들의 회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1. 인류가 자기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는 방편,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길.
2. 하나님의 성품과 나라에 대해 그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분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 줄 길.
3. 그들의 죄책과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값어치를 회복시킬 길.
4. 그들의 목적의식, 곧 존재의 이유와 운명을 되찾을 길.
5. 위의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놓은 것이므로, 선택하고 결정할 시간을 벌어 줄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6.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못 본 척하고 괜찮다고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온전히 그들에게 떨어지도록 두지 않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한 일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려면 그 선택의 결과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결정적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이런 지점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하실지 이미 정해 두셨습니다. 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온전한 계획이었습니다.

주

1. 베드로전서 1:20; 요한계시록 13:8

7장 하늘의 생명줄

사람으로서 이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랑을 설명해 보려고 그리스 사람들은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의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1]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넌지시 가리킵니다.

>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로마서 5:7**

아드메토스 왕은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고 공정하기로 이름이 높아 온 나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 아폴론은 아버지 제우스에게 쫓겨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와 신성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사람을 종처럼 섬기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땅으로 내려온 그를 아드메토스 왕이 가난한 걸인으로 만나 가엾이 여겼습니다. 왕은 그를 먹이고 자기 양 떼를 치는 목자로 삼았으며 아들처럼 대했습니다. 열두 달이 지나 아폴론은 본래의 신적인 모습으로 돌아갔고, 도와준 것을 고마워하며 왕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 도움이 필요하거든 청하기만 하십시오.”

얼마 뒤 아폴론은 아드메토스에게 돌아와, 저승의 신 하데스가 곧 그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아폴론은 하데스의 아내 페르세포네와 약조를 맺어, 그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을 찾기만 하면 그가 죽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드메토스는 부모에게 가서 대신 죽어 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선하고 인자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목숨을 더 사랑한다. 너를 위해 죽을 수는 없다.” 왕은 온 나라를 뒤져 자기를 대신해 죽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드메토스가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려던 그때, 그의 아내 알케스티스가 아폴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아폴론이시여, 당신은 제 남편에게 복을 주시어 온 나라에서 그의 명성과 재산을 열 배로 늘려 주셨습니다. 아드메토스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며 백성에게 그토록 필요한 사람이니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그가 살도록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온 땅이 선한 왕의 선한 아내를 위해 울었습니다. 백성에게 깊이 사랑받던 그가 자기 왕을 살리려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알케스티스가 페르세포네 앞에 섰을 때 페르세포네는 그를 가엾이 여겨, 남편에게 보인 신실함의 상으로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드메토스와 알케스티스가 함께 나이 들어 가는 동안 아폴론도 그들의 신실함에 보답했고, 마침내 늙어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합니다.

>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도는 사람의 사랑의 한계를 보여 주는 이 이야기와 대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9)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10)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로마서 5:7-1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도록 허락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을 미워하고 멸시한 원수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한 크신 사랑과 긍휼로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2]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성경이 화평의 의논이라 부르는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3] 그때에 인류가 그분들을 거슬러 선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누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아담의 대속물로 삼아 그 선택의 결과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까? 아들이 그들의 무가치함과 절망을 스스로 짊어지고 무덤까지 지고 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까?

이 글을 쓰는 지금 제 아들이 바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 고운 얼굴을 보면 기쁨과 사랑이 제 마음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본다고 상상해 봅니다. 인류가 제 아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여, 사람이 사탄과 한편이 되어 저와 제가 지키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살인자임을 드러내는 자리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머리는 그 생각을 그냥 닫아 버립니다. 저는 그 생각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고,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그분의 난제로 생각이 돌아가면 저는 그저 멍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그분께 가장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로 얼룩진 삶으로 그분의 아들을 죽인 죄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통해 온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끝없는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합니다.

훗날 사람 예수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기꺼이 하려 하셨다는 것이 저는 놀랍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처음부터 아신다고 말하며, 아버지께서는 그 지식을 아들과 나누셨습니다. 죄가 우주에 들어온 순간 그분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었습니다. 거절과 매질과 조롱, 미움과 저주와 욕설, 벌거벗김과 십자가 위의 어둠, 수십억 영혼의 무가치함이 그분을 짓누르는 것, 여러 세대에 걸쳐 쌓인 죄책과 슬픔까지 다 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4]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못해 오시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서, 자녀들을 그들에게 예비된 충만한 기쁨으로 되돌리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을 누구와 견주며, 어떤 말로 그분을 다 찬양하겠습니까?

앞 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했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능력이 필요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보고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알아채고 폭로하고 물리치도록 도와줄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참된 영적 북쪽을 가리켜 줄 도덕의 나침반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주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15**

이 구절은 약속과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여자 사이에 원수 됨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말씀하실 때는 그에게서 나올 모든 사람, 곧 온 인류 가족을 뜻하십니다. 원수 됨이라는 말은 미움 또는 적을 뜻합니다.[5] 하나님께서는 인류 가족의 마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과 진리를 사모하는 무엇인가를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 가족을 화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자손과 사탄의 자손 사이의 미움이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악을 미워함을 은혜 또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로마서 5:15**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원수 됨에서 곧바로 나옵니다. 같은 선물이 그토록 필요한 생명의 선물도 함께 줍니다.[6] 바울은 로마서 같은 장에서 이 사실도 말합니다.

>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18**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쉬는 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희생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곧바로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숨 쉬게 하며 여러분을 살아 있게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우리 편에서 불수의적이라 부르는 모든 기능이 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말씀의 심장이십니다.

>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28)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17:27,28**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은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분의 중보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신다면, 진실은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결코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맥박을 짚어 보기만 해도 그분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옳은 일을 하려는 마음과 악을 물리치려는 마음을 두신다는 사실까지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가 다시 생각하고 하지 않았던 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곧 악을 미워하는 원수 됨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을 행사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선물을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리신다고 말합니다.[7] 사탄이 어떤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을 해치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라는 악한 생각을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원수 됨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준 일이 얼마나 많았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 이끄심을 거부하고 악을 저지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 됨이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음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아버지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는 한 종족으로서 완전히 길을 잃었고 사탄의 악한 방식에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길이 전혀 없었고, 비참함과 완전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애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한 것, 곧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인류 가족의 한 분, 우리 가운데 한 분으로 계실 것입니다. 이 희생은 영원토록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분의 영이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한 진실을 믿게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간절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되찾으려고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압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

1. https://en.wikipedia.org/wiki/Admetus
2. 더 자세한 내용은 로버트 윌랜드(Robert Wieland)의 The Word That Turned the World Upside Down을 보라. http://fatheroflove.info/download/view/863
3. 스가랴 6:13
4. 시편 40:8
5. Vine's Expository Dictionary - Enmity
6. 여기서 생명이라 할 때는 영생이 아니라 은혜의 기간에 주어진 생명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시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택하거나 거절하게 하셨다.
7. 마태복음 5:45

8장 두 왕국의 비교

더 나아가기 전에,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나라를 간추려 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둘은 모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무엇이 한 나라를 나라답게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면, 살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정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정이나 독재정입니다.
2. 화폐: 그 나라의 백성이 서로 재화를 주고받는 가치 체계입니다.
3. 시민권: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두 나라를 다음과 같이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정부	가족	가장 강한 자
화폐	사랑 / 자비 / 자유로운 선택 / 하나님을 믿는 믿음	힘 / 자산 / 강제 / 자기를 믿는 믿음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	성과와 성취

하나님의 정부는 가족 체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정부의 머리는 아버지이십니다. 다스리는 이와 백성의 관계는 가깝고 친밀합니다.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누가 더 강한가의 문제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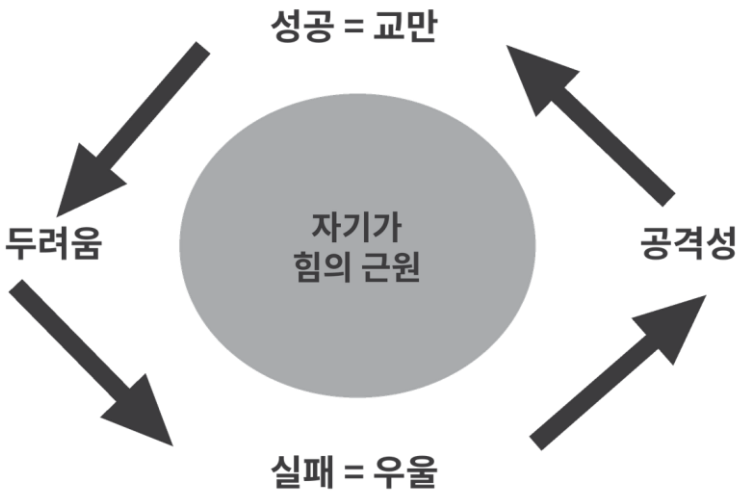
다스립니다. 민주정에서도 자기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알리고 유권자를 가장 강하게 설득하는 이가 권력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힘으로 거래합니다. 사랑이 하늘의 화폐입니다. 백성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므로 자기 값어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은 속셈 없이 서로의 사귐을 순수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가장 큰 소망입니다.[1]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성품에는 끝이 없으므로 이 기쁜 일에도 끝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배울 것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분에게서 직접 배우기도 하고 그분이 지으신 것들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살피고 자연과 우주를 연구하는 것도 이 나라에 속한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 분명히 인정되므로, 모든 피조물이 기쁜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께 경배합니다.[2]

이와 달리 사탄의 나라는 자산으로 거래합니다. 값어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에서 오므로, 값있는 존재가 되려면 자산을 쌓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 자산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지적인 것일 수도,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이 클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값어치가 커집니다. 학력이 높을수록, 직위가 높을수록 값어치가 커집니다. 어울리는 사람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내 목적에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람 안에 힘이 있다고 믿으므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면 내가 더 강해진다고 여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더 많이 얻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구는 것이 흔한 방법입니다. 영업하는 이들이 늘 쓰는 방법입니다. 큰 업적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어 따르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힘과 협박과 위협으로 사람을 통제하고 충성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그토록 많은 관계가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값어치를 키우려고 서로 손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대비는 시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시민이 됩니다. 삶의 형편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맺은 관계 안에서 안전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는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 시민이 됩니다. 성취든 게으름이든, 성과와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침마다 일어나 오늘 무엇을 이루어야 내가 나를 괜찮게 여길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 성취를 방해하면 짜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별로 이룬 것이 없다고 느끼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더 독해집니다. 삶은 교만과 무가치함을 도는 쳇바퀴가 됩니다. 이루면 교만해지고 실패하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성공과 실패 사이의 삶은 이루려는 초조한 결의이거나, 이룬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죽거나 나라를 바꾸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쳇바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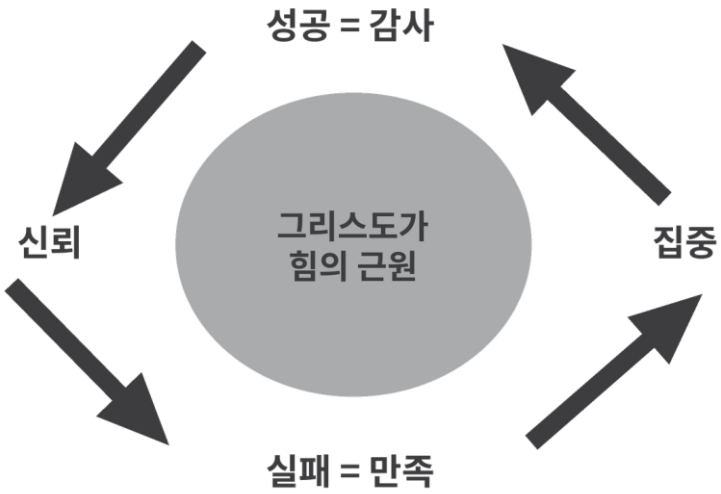


사탄의 나라에서의 감정 순환

이 순환은 우리 안에 힘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오는 단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동력을 낸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누구에게서도 값어치를 얻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값어치를 길러 내고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성공할 때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실패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님에 더 가까이 밀려납니다.

저는 처음 집회에서 발표를 시작하던 무렵 제 마음속의 갈등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리켜 보일 때 저는 참으로 복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서 나가는 분들과 인사할 때면,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고 제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설교를 잘할수록 제 마음은 더 많은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인 줄 알았기에, 한동안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전했다고 하면 "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색하게 들릴 때가 많았고, 더러는 제가 그들을 밀어낸다고 느끼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우리가 하는 어떤 일과도 상관없이 그분께 값있게 여겨진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가치함을 걱정하거나 남의 인정을 구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성공하고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감정 순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취에서 값어치를 얻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성취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훨씬 더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무가치함의 두려움을 마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를 갈가리 찢어 놓거나 값어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이 두 나라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에서는 이 두 나라가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씨름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유를 내걸고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깊은 의미와 값어치를 여러분에게 남겨 줄 나라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주

1. 빌립보서 3:9,10
2. 요한계시록 14:6,7; 요한계시록 4:1-9

9장 바벨론의 심장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이제 마주하게 된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의 비통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화목했고, 그 아이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마약 밀매와 절도와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애타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비통한 부르짖음은 우리가 감히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여러 번 터져 나왔습니다. 반역과 악의 길로 빠진 자녀 때문에 수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부모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근원은 우리 첫 조상과 그들의 맏아들 가인의 비극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린 가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을 부모라면 아실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이제 그들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하와는 그 귀한 아기를 안고 외쳤습니다. “내가 한 남자, 곧 주를 얻었다.”[1] 하와는 가인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자손이며 모든 민족에게 치유와 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와에게 쓰라린 역설은, 가인이 남긴 유산이 수백만에게 비참함과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부류의 예배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류는 세상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성경은 훗날 이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정신이 무엇이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빠, 왜 저 불쌍한 어린 양을 죽여야 해요?" 어린 양을 잡는 일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의 본성적인 감정이 어떠한지, 그러므로 회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인류 가족 앞에 늘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 처지를 보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용서를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기꺼이 치르신 값을 드러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습니까. 이 예식은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곧바로 가리켰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드러내실 때를 소망 가운데 앞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타락 이래 인류가 그리스도께 저지른 일의 수치를 뒤로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일깨우는 위로인 동시에, 인간의 배은망덕과 이기심을 일깨우는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언제나 뒤섞인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말 없는 고통을 바라보는 일은 이기심과 자기 뜻의 대가를 뼈저리게 각인시켰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어린양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은 언제나 인간 본성이 그리스도께 무슨 짓을 하는지를 깨닫는 데서 오는 영혼의 고통과 뒤섞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인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그런 타락은 없었다며 인류의 기원을 다시 쓰거나, 아니면 그 죽음을 하나님이 죄에 대한 진노를 풀기 위해 요구하신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십자가는 빛에서

어둠으로 바뀌거나, 더 나쁘게는 겉으로는 소망의 상징으로 내세워지면서 실제로는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조종의 상징으로 제시됩니다.

부모가 어린 양을 잡는 것을 여러 해 지켜보며, 그 눈물과 슬픔이 오실 그 자손에 대한 소망과 인내와 확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아 온 가인은 마침내 겸손과 회개의 필요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잡힌 어린 양이 드러내는 인간의 실패에만 눈을 두었기에, 가인은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은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인에게 그 어린 양은 자기 불안만 들쑤셨습니다. 그 불안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의 한 부분이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사탄에게서 받았습니다. 가인에게 그 어린 양은 자기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자기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사탄은 당연히 가인을 부추겨, 예배에서 어린 양 잡는 일을 없애는 과감한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행위로 회개의 필요를 없애 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2] 또한 가인이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제물은 자기 손으로 한 일로 하나님의 존중을 얻어 내려는 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예배를 겸손한 믿음에서 교만한 과시로,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거래로 달래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 종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흥정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무시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만한 우리 자신의 생명이 없으며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이것을 잊었습니다. 사탄은 어린 양이 주는 죄의 자각에서 스스로를 풀어놓으면 자유를 얻으리라고 약속했지만, 어린 양을 없앰으로써 가인의 종교는 참되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 자기가 만들어 낸 신에게 바치는 성과 중심의 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에서 가인은 듀라셀 나무의 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행위라는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날아올랐고, 처음에는 짜릿한 자유를 맛보았지만 그 패러글라이더가 한계에 이르러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5장에서 우리는 가족 관계가 무너질 때 생기는 정서적 흉터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 끊임없이 인정을 구합니다.

·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과잉 반응합니다. 곧 남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3]

가인이 자기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서 벗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 거리가 그의 불안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의 두려움을 달래 줄 수도, 사탄의 거짓말을 반박하도록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공허는 더 커지고 수치는 몇 배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러했듯 가인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무엇으로든 메워 보려고 헛되이 몸부림쳤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는 마음속 깊은 공허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계획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가인의 요동치는 감정은 머지않아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기로 정해진 때,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제물을 불로 살라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그대로 두셨습니다. 가인을 격노하게 하는 데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죄는 지독하게 비논리적입니다. 가인은 지시를 따르지 않고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몹시 화를 냅니다.

가게에 가서 빵 한 덩이를 굽는 데 필요한 재료를 모두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드는 법을 물으니 주인이 목록을 적어 줍니다. 모든 것이 잘되어 가다가 효모 냄새를 한번 맡고는 이건 없는 편이 낫겠다고 결정합니다. 반죽을 오븐에 넣고 잠시 뒤 꺼내 보니 아주 납작하고 초라한 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격분하여 가게로 달려가 빵이 실패한 것을 두고 주인에게 퍼붓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인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값어치가 자기 노력과 성과로 정해지는 사탄의 나라를

받아들였으므로, 인도를 받고 바로잡힐 능력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쉽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대신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를 도우시고 바로잡으시며 약속된 아들의 선물로 그를 다시 이끄시려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의 반역하는 마음은 자라고, 어둠의 나라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가장 성공적인 실험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마음은 사탄이 하늘에서 풀어놓은 감정의 힘에 완전히 지배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터지기 직전까지 커졌습니다. 그는 끔찍한 처지에 갇혀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고 값있게 여겨지고 싶은 갈망을 채우려고 위에 있는 힘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졌으며 어린 양을 통한 그분의 사랑의 마련하심에 겸손히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아벨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여전히 속이 끓던 그는 동생과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아벨은 예배 방식에 대해 형에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라고 권합니다. 가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졌습니다.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그를 더 이상 아무래도 좋다는 지점까지 몰고 갔고, 그 순간이 오면 사탄에게는 완전히 열린 문이 주어집니다. 사탄은 가인을 동생을 향한 격렬한 미움으로 채웁니다. 가족 관계는

잊히고, 사탄의 나라가 이제 온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온 하늘이 지켜보는 가운데 첫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하고 귀한 관계가 처음으로 지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짓밟히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늘이 숨을 삼켰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조차 아벨의 주검이 땅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보며 한순간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끔찍함을 털어 내고, 자기 종을 확실히 붙들어 두려고 가인의 마음에 죄책을 아주 깊이 눌러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광기입니다. 그는 자기 반역의 길을 따르면 자유와 행복이 있다고 약속하고서,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께 우리를 멸하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는 것도 그의 목소리입니다. 동시에 우리 영혼에 대고 너는 너무 악하고 사악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속삭이는 것도 그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죽고 싶어질 만큼 죄책을 키우는 것도 그의 목소리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천사가 이토록 비참한 파괴자로 바뀌었다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제 가인이 완전히 선을 넘었으므로 그의 영혼에는 방패가 없고, 사탄은 그를 몰아 부르짖게 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4] 이보다 더 슬픈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신 것은 그를 끊어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되찾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도 그를 고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서글픈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 저주의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유리하며 떠도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가리키며, 소망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늘의 지팡이를 휘둘러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의 가족 왕국을 거부한 일 자체에, 친밀한 관계를 거부한 일 자체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괴로웠습니다. 그는 친밀함을 위해 지어졌으나 그의 마음은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늘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가까이 오는 이를 밀어냈고, 가까움을 원하면서도 자기 무가치함이 웅크린 마음의 은밀한 방에는 아무도 들이지 못했으며, 친구를 원하면서도 자기 실력을 위협할 경쟁자를 늘 경계했습니다. 여기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잠언의 진리가 있습니다.[5]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말합니다.[6]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 없이 살았습니다.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에게서 차단했다고 믿음으로써,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자기에게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인정과 값어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그는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려 했습니다. 큰 건물을 세우고 자기가 이룬 것에서 값어치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증거는 가능한 한 의식에서 밀어내려 했습니다. 자기 영혼의 상태를 물어볼 겨를조차 없도록 스스로를 바쁘게 몰아갔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은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불안과 무가치함의 온갖 표를 지닌 한 종족이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힘과 자리를 좇는 자들이었고, 경쟁자라면 누구든 시기하는 통제의 정신을 길렀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 끝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값어치를 관계적이고 인격적이신 위대한 하나님의 품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찾도록 붙들어 둘 수만 있다면 그들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사탄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두고, 무가치하고 불안한 그들의 영혼을 자기 영혼에 묶어 세상을 다스리려 해 왔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심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로 정체성과 값어치를 찾으려 하고, 자기 업적에 대한 인정을 구하며, 위협받지 않도록 상황을 조종하려 애쓰는 괴로운 마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마음이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펼쳐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

1. 창세기 4:1의 문자적 표현
2. 창세기 4:3

3. Conway, p 31.

4. 창세기 4:13 – 난외주 표현

5. 이사야 57:20

6. 창세기 4:16

제2부. 하나의 운명

– 되찾은 정체성

10장 듀라셀의 사슬을 끊다

서로를 껴안은 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정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었지만, 두 분 다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은 늘 가까운 사귐을 나누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귐이 곧 극한까지 눌리고 마침내 끊어질 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인간 아들딸들을 되찾는 사명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위험과 대가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두 분을 이끕니다.

잠시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미래를 바라보시며 예언의 눈으로 그 사명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멸시와 거절과 미움, 침 뱉음과 발길질, 채찍과 못, 이 모든 것도 하늘과 땅이 멈추어 서서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서는 것을 바라보는 그 한순간의 참혹함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은 수천 년에 걸친 죄책과 고통과 반역과 무가치함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보시고, 죄가 만든 아버지의 가리워진 얼굴 앞에서 자신이 잎사귀처럼 떨며 찢기고 상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버지는 그 어둠 속에서 아들과 함께 계시지만, 우리의 버림받음을 그 죽음의 참혹함 속으로 지고 가시는 분은 아들이십니다.[1]

포옹이 더 깊어집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들을 이 운명에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 깊은 차원에서 두 분은 실패의 가능성과 죄의 권세에 영원히 잃어버릴 가능성과도 씨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본성을 입으실 것이고, 그것은 그분의 오랜 대적 사탄에게 그분을 이길 기회의 창을 열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보장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일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숨 막히는 계획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두 분을 이끕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그 긴 침묵이 마침내 끝나고, 두 분은 그 계획을 이루기로 결단하십니다. 아들이 하늘 끝으로 걸어 나가 아버지의 사랑 어린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시고, 그리고 떠나십니다.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아들딸들을 구원하시려면 감당하셔야 할 길고 어려운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사탄의 나라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났으며 사탄이 우리의 무가치함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려면 그 무가치함을 없애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이어 주시고, 듀라셀 나무에서 잉태된 거짓 정체성을 이기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며, 사탄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이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을 초라한 마구간으로 이끈 빛나는 별도 그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고귀한 아기를 바라보며 그는 이번에는 싸움이 만만치 않겠다고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아기 위에 머문 평온함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아이에게는 늘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아기도 살과

피로 되어 있었지만, 그가 도무지 흔들 수 없는 깊은 평화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곤경에 처했음을 알았습니다.

그 불안한 기운은 헤롯의 마음에도 내려앉았고, 우리는 어두운 영의 세계가 얼마나 요동쳤는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헤롯을 지배하던 깊은 불안은 그를 하늘 나라를 향한 사탄의 '충격과 공포' 작전에 손쉬운 먹잇감으로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분을 없애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왕의 평화로운 확신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섭리가 그분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시고, 어둠의 통치자를 폭로하시며, 인간의 몸으로 멸망할 인류를 묶고 있던 불안의 사슬을 끊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다음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29**

사탄이 무엇을 하든 그는 그 존엄과 확신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둠의 왕자조차 경외하게 만드는 끈질김으로 자신의 아들 됨을 붙드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죄로 이끌려는 헛된 노력에 사탄은 격분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사탄에게 저항할 수 있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천 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너뜨려 온 사탄이, 하나님을 향한 아들 됨을 확신하는 한 인간 영혼이라는 바위 같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들 됨이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아들

됨이야말로 인류를 익사시키던 그 무가치함의 급류를 막아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됨이 그리스도와 그 대적 사이의 싸움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사렛 마을이 설렘으로 술렁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이 빠르게 퍼집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가 왔다는 소식이 초라한 목수의 작업장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끌과 톱을 내려놓으시고 어머니를 안으신 뒤 요단강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됨을 확신하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가올 싸움은 지금껏 어떤 사람도 받아 본 적 없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온갖 비참함의 문이 터진 둑처럼 그분께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무가치함의 온 힘을 정면으로 마주하시고도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굳게 서신다면, 처음으로 누군가가 듀라셀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전리품은 그분을 믿는 이들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광야의 싸움은 십자가의 사역에 있어 기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자기 아무것도 아님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용서의 제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선물을 받아들일 힘이 어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아이에게도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의 계시라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듀라셀의 무가치함과 아무것도 아님이 먼저 극복되어야 하고, 그 승리의 전리품이 인류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십자가의 비할 데 없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믿을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다가오는지 아시고 싸움을 위해 아들의 손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능력의 과시로도 아니고, 무기를 든 군대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는 다가오는 원수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무기를 내놓으십니다. 곧 서로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시고 비둘기가 내려오며 하늘이 열릴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음성을 또렷이 들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아들의 손에 쥐여 주실 수 있는 가장 예리한 검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안전하신 그분은 교활한 원수와 싸우시며, 우리가 결코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족쇄를 우리를 대신하여 끊으실 것입니다.

이 선언의 의미는 대부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한 사람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은 나머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면, 먼저 그 귀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원수가 주는 선물은 독이 들었을까, 무슨 조건이 붙었을까 의심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주는 선물은 있는 그대로, 순수한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들 됨과 딸 됨에 대한 굳은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 십자가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길은 율법주의로 가거나 죄에 대한 방종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들린 그 말씀은 사탄을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자기도 한때는 그러했으나 이제는 아닌 것, 곧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과 헛됨을 일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께 유혹의 포화를 퍼부을 준비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2] 대부분의 사람은 십 분만 계속 유혹을 받아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사십 일이라니요. 사탄은 사천 년 동안 시험을 연습해 왔고, 지옥의 모든 무기가 예수님을 과녁으로 삼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싸움의 깊이를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한 번 또 한 번 타격을 가하는 동안 온 우주가 숨을 죽였습니다. 정작 우리는 곤히 잠들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영웅적인 버티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실패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의 사슬에 짓눌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을 뚫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셨습니다.

이런 대목에 이르면 저는 잠시 멈추어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절박한 처지를 도우시려는 이 위대하신 왕자의 굽히지 않는 결심 앞에 제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벅차오릅니다.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어 자기 아이를 구해 내는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분은 사탄에게 정신이 짓눌릴 지경에 이르셨으면서도 자신의 아들 됨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안 깊은 곳에서 이런 외침을 끌어냅니다. "나는 무엇인가 값어치가 있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정말로 아끼지 않고서야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이 사랑은 제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이끕니다. 저는 그분을 거스르기도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분은 저보다 더 끈질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지신 그때, 곧 지치고 굶주리고 외로우신 그때, 사람을 타협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사탄은 핵심을 찌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3] 시험의 주제가 아들 됨 말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얼마나 계실지 듣지 못하셨습니다. 사십 일이면 다 끝난다는 말을 들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먹이러 오는 까마귀도 없었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이 착각이었던 것은 아닐까? "너의 아버지는 네가 이런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무엇이든 해 보아라." 사탄이 속삭입니다.

사탄은 식욕이라는 통로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꺾으려 했습니다. 사십 일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빵으로 바꾸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는 것이고,

그 의심만으로도 그분의 정체성을 흔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 보이라는 요구를 받고 계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증명하려고 돌을 빵으로 바꾸어 보라는 요구는 사탄의 나라로 곧장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성과와 성취로 얻는 정체성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가 이룬 것으로 자기 값어치를 증명하려는 이 덫에 걸려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에 오를 만한 사람임을 보여 주겠다는 마음에 떠밀려 잠도 쉼도 미루고, 무엇보다 기도 시간과 성경 공부를 미루며,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소중한 가족 시간을 놓칩니다. 그저 그 승진이나 상여금을 얻으려고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신을 몰아붙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도전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거든,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증명해 보아라."

아침에 깨어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묵상하려 할 때, 그날 해야 할 온갖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결국 견디지 못하고 오 분짜리 기도로 타협하고는 하루 속으로 뛰어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루를 마칠 무렵 별로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전히 만족스럽고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실망스럽고 조금 우울해지십니까? 할 일 목록을 지워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아파서 누워 '시간을 버리는' 것에 짜증이 나십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의 정체성과 값어치를 증명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물려받은 그 불안 요소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는 자신을 가릴 영적이고 정신적인 무화과 잎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에 쉽게 넘어갑니다. 불안한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도전에 반드시 반응하지만, 안정된 사람은 아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로트와일러를 기르는 친구와 함께 걷던 때가 생각납니다. 훨씬 작은 개를 기르는 이웃집을 지나가는데, 그 작은 개가 짖고 깽깽거리며 로트와일러의 관심을 끌려고 뛰어다녔습니다. 로트와일러는 그 작은 개를 쳐다보려고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개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덤벼 봐. 내가 너 같은 큰 개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주인에게 보여 주겠어." 그러나 로트와일러는 자기가 누구인지 확신했기에 그 도전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자기 값어치에 무엇이 더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의 광야로 들어가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가족에게는, 자기가 한 일로 증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 줄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죄에 묶어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무적처럼 보이는 무가치함이라는 골리앗에 맞설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의 그리스도의 시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와 여러 면에서 닮았습니다.

1. 영적 존재인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짊어지신 예수님보다
   여러모로 유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33

2.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대표하셨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자유를 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모든 악의 세력을 대표했고 그의 승리는 우리가 영원히 어둠의 권세의 종으로 남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9

3. 골리앗이 사십 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듯,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의 조롱과 유혹을 마주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16

4. 사탄과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나왔지만, 예수님과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아버지를 드러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폭로했습니다. 사무엘상 17:45

5. 예수님께서 쓰신 무기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셨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사탄의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닮은 점이 놀랍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언덕에 서 있는 이스라엘 병사 가운데 하나로 그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제 하나님과 제 신앙과 저 자신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가 그토록 강하다면 왜 나와 싸우지 않느냐? 너희는 약하고 쓸모없으며 너희 하나님께 수치일 뿐이다.” 이런 모욕을 사십 일 동안 듣는다면 정말 우울해질 것입니다. 게다가 그 덩치를 보십시오. 갑옷은 햇빛에 번쩍이고 괴물 같은 목소리는 골짜기를 가로질러 욕설을 쏟아 냅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이고, 종살이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가라앉는 심정이 밀려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능과 약함에 대한 사탄의 조롱을 듣습니다. 그의 유혹은 너무 강하고 압도적으로 보이며,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그 가라앉는 심정이 밀려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종살이는 결코 끝나지 않으며 죄가 언제나 우리를 이길 것이라고 설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의 종살이에 그토록 슬프게 항복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 진영에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시험의 광야에서 그분이 거두신 승리는 온 인류 가족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 골리앗을 스스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언덕에 서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유혹의 머리를 베시는 것을 경외 가운데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건져 주시기를 바라는 대신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가 내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핵심을 찾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께서 저를 무가치함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그분은 제 반역과 교만의 심장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발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저를 위해 그 의심들을 마주하셨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딸 여러분, 저와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듀라셀의 사슬을 부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주

1. 히브리서 2:9
2. 마가복음 1:13
3. 마태복음 4:3

11장 하늘의 문을 열다

한 줄기 빛이 어둠을 가르며 새벽이 왔음을 알립니다. 그것은 또한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길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짧아집니다. 새벽 속으로 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억들이 밀려듭니다. 이삭을 처음 품에 안던 순간, 그토록 오래 기다린 끝에 터져 나온 그 벅찬 기쁨이 떠오릅니다. 어린 이삭이 아빠 침대로 뛰어들어 바짝 붙어 안기고는 아담과 하와, 노아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기억이, 앞에 놓인 일을 생각하는 그의 어깨 위에 거대한 납덩이처럼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2**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온 힘을 끌어모읍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이 명령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그분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며 그분의 길만이 안전한 길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힘겨웠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겨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몰아치던 씨름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들 대신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리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그 운명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 고통을 감추려고 애쓰며 가쁘게 숨을 쉽니다. 이것은 곧 지나갈 악몽일 것이라고 여겨봅니다. 그러나 이삭이 묻는 순간 현실이 그를 덮칩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화살 하나가 아브라함의 심장에 박힙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1]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고통스럽게 이삭에게 밝힙니다. 이삭은 젊은이였으므로 아버지를 쉽게 제압하고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의 훈련을 배웠고, 자기 뜻을 아버지의 지혜에 굽힙니다. 온 하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이제 인간의 이성이 믿음을 향해 온갖 논증의 포화를 퍼붓지만, 태풍 속의 키 큰 백향목처럼 아브라함은 휘어질지언정 자기에게 주어진 요구를 이해한 대로 행하려는 결심을 꺾지 않습니다.[2]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아픔이 그의 심장을 찢고 기력이 꺾이려 하지만 그는 굳게 붙듭니다. 기도를 드리고, 그는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끊을 칼을 내리치려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순간 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이 이야기를 깊이 생각할 때면 저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저를, 이삭의 자리에 제 아들을 놓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느꼈을 중압감을 이해해 보려 하지만, 그림은 곧바로 멈춰 섭니다. 제 안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손을 뻗어 그 장면이 완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제 마음은 그런 장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참혹함과 희생을 이해하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어렴풋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두 분의 나라의 본질은 두 분 사이에서 그대로 본을 보이고 있으며, 삶을 대하시는 두 분의 방식의 핵심은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십자가에 이 관계의 차원을 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요점을 놓친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16**

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진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린 두려움입니다. 저는 집회 때문에 일주일만 가족을 떠나 있어도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마음이 사무칩니다. 이 세상에서 제 가족과의 관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영원히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려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오직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 창조주와 그분의 아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응하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살아나 아버지와 다시 함께하실 것을 아셨으니 그렇게까지 힘든 일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셨습니다. 무덤의 문 너머를 보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명이 실패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반역한 세상의 죄책이 그분을 짓누르고,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분의 기쁨이었던 그 사랑의 얼굴을 찾아 어둠 속을 더듬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버지의 얼굴을 가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삼켜졌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분에게서 영원히 끊어지리라고 믿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믿음이 부르짖었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믿음은 그 압도적인 상황을 뚫고 승리했습니다.[3]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죄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눌러, 죄인이 죄책 때문에 느끼는 것을 그분도 느끼게 하였습니다. 9장에서 우리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부르짖은 가인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것을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며 우리 죄 때문에 실제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이 이 경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그림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죽이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에 대한 공의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시각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신 사실은 그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히 여기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만큼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숫양을 대신 마련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를 대신할 대속물을 마련해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음을 믿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이 자신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우리 죄 때문에 짓밟히고 끊어지던 그 무서운 날의 지진과 어둠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떻게 너를 내어 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너를 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관계가 끊어지는 지옥을 겪으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가 치러야 한다고 여긴 값을 치르셨습니다.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가 뜻하는 것의 정반대, 곧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의 반대가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참혹함을 맛보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4]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궁극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옥의 짓누르는 무게를 겪으심으로 그 문을 닫으셨기에, 하늘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립니다. 우리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거부하고 신적인 사랑에서 스스로를 영원히 끊어 내는 이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가치하고 반항적이고 고집스러운 상태에서, 곧 자기가 한 일로 정체성을 깎아 만들던 자리에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아는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지만, 우리는 듀라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로 얻는 정체성에서 아들 됨과 딸 됨으로 얻는 정체성으로, 다시 말해 행위로 받는 구원에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으로 옮겨 가는 여정을 해야 합니다. 이 책의 나머지는 이 여정의 도전과 특권에 바쳐질 것입니다.

주

1. 창세기 22:7,8
2. fatheroflove.info의 책 Agape 24장 '아브라함과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보라.
3. 시편 31:5
4. 고린도전서 15:55

제3부

– 아들 됨으로 돌아가는 여정

12장 듀라셀로 움직이는 삶

강당에 기대감이 감돕니다. 저는 동급생들과 함께 앉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겉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바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그해의 성취를 따라 여러 학생에게 상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아주 흥미로운 마음의 놀이를 합니다. “너는 올해 열심히 했으니 다음 상은 네가 받을 수도 있어… 아니야, 다른 사람이 받겠지…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이름이 호명될 순간이 다가오자 기대감에 심장이 빨리 뛰고, 이윽고 이름이 들립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이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겉으로 저는 친구와 그의 성공을 위해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저 친구가 받지?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한테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 아, 이유를 알겠다. 선생님 가운데 한 분과 친척이라서 뽑힌 거야. 결과가 조작된 거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야.” 그러는 내내 저는 박수를 치며 웃고 태연한 척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이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조금 우울하고 조금 화가 나 있습니다. 듀라셀로 움직이는 삶의 또 하루일 뿐입니다.

아이는 값있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려면 또래 가운데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알아냅니다. 비교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녀 하나의 생일에 선물을 사 주고 다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사 주지 않는 덫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개 온 집안이 뒤집어지고, 빠진 아이는 눈물과 비명, 때로는 떼쓰기와 함께 "불공평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의 "나 좀 봐" 경쟁이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는데, 등 뒤에서 "나 좀 봐" 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다른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 아이가 그것을 알아채고 "나 좀 봐" 하고 외칩니다. 그러고 나면 기관총처럼 "나 좀 봐"가 쏟아지는데, 한 번 한 번 소리와 강도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으려고 앉아 막 한 술 뜨려는데 이 사랑스러운 노래가 들려옵니다. "쟤가 나보다 많아. 불공평해. 나도 더 줘." 이것이 듀라셀로 움직이는 삶의 본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 더 세련되게 굴려고 하지만, 비교와 관심 끌기가 인간 존재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대부분의 학교 교과 과정도 이 비교와 관심 끌기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정의 애정에서 떨어져 나와 또래 무리와 함께 몰아넣어지는 것은 듀라셀 원리를 심기에 더없이 좋은 토양입니다. 이후 십이 년은 여러 영역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남보다 뛰어나 밝고 행복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경주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는 더 똑똑한 쪽을 선호하는 듯합니다. 비교 우위에 있는 지능은 여러분을 멀리 데려다줄 자산입니다. 지식을 담아 두었다가 그대로 쏟아 낼 줄 아는 아이가 손재주를 타고난 아이보다 더 높은 상을 받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1] 정원을 정말 잘 가꾸거나 자동차 엔진을 잘 고친다는 이유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 재능을 가진 이들에게도 자리는 있지만, 운은 대체로 학문적인 쪽을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은 성적표를 집으로 가져오고, 그 성적표를 근거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손재주는 뛰어나지만 공부에서는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흔히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는 말을 합니다. "그건 내 능력 밖이야", "나는 절대 그런 건 못 해", 심하게는 "나는 그런 걸 하기엔 너무 멍청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성공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체육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들이 운동 능력이라는 비교 잣대를 기를 수 있게 해 줍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갈망하던 힘과 영광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며 수천 시간을 들여 운동 기술을 갈고닦습니다. 운동은 그저 놀이일 뿐이라고요? 월드컵 기간에 유럽 거리를 휩쓰는 잉글랜드 축구 팬들에게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크리켓 팀이 월드컵에서 지는 것을 보다가 심장 발작을 일으켜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숨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왜 어떤 운동선수는 가죽 조각을 차서 두 막대 사이로 넣으려 애쓰는 일로 한 해에 수백만 달러를 받습니까? 운동은 진지한 사업입니다. 성취로 값어치를 얻고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받는 가장 손쉬운 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듀라셀을 먹이고, 성취가 아니라 관계로

값있게 여겨질 수 있다는 믿음을 죽이는 가장 좋은 체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운동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하나는, 최고 수준으로 해내더라도 이등이면 아무도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정서적 충격은 참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승부차기에서 실축하여 팀이 그토록 바라던 우승컵을 놓치게 한 축구 선수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아기처럼 흐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독이 그를 부축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며, 그 순간 그가 자기 값어치를 얼마로 느꼈을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저 경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어치와 받아들여짐을 건 생사의 싸움이기도 한 경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성공과 행복을 주기를 바라는 다른 신들도 여럿 꼽을 수 있습니다. 외모의 영역이 있습니다. 광대뼈의 생김새나 가슴둘레로 명성을 얻거나 잃는 살벌한 세계입니다. 자기가 기준에 못 미친다고 느껴 밤마다 울다 잠든 젊은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최근에는 주로 여성들이 불가능할 만큼 마른 몸을 만들려고 스스로 굶는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산 축적이나 직업의 지위, 심지어 사는 동네의 등급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사무직 세계에서 몇 해 일했는데, 그 서열을 관찰하는 것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사무 가구의 종류와 품질만 보아도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는 아래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창이 있는 독방을 씁니다. 팔걸이가 있는 등받이 높은

가죽 의자에 앉습니다. 최신 컴퓨터가 올려진 큼직한 원목 책상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람도 자기 방이 있지만 창밖 전망이 그만 못하고 의자도 그만큼 좋지 않으며 컴퓨터도 그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다음 사람은 칸막이로만 구분된 자리를 쓰고 의자에는 팔걸이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그에게는 핸즈프리 전화기도 없고 창밖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습지만, 기업 세계에서는 매우 진지한 문제입니다. 사무 가구는 동료들과 효과적으로 비교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듀라셀의 세계에서 비교의 기회는 끝이 없지만, 대개 다음 몇 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로 모입니다.

1. 학력
2. 운동 능력
3. 음악과 예술 능력
4. 직업의 지위와 소득 수준
5. 외모
6. 소유와 자산
7. 국적

이것들이 세상이 섬기며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신들입니다. 이 신들은 혹독한 주인이며, 은혜를 입고 싶거든 대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보통 가족과 친구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며, 운이 좋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지기 전에

잠깐의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듀라셀의 힘을 통해 이 신들의 종이 되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들에게서입니다.

주

1. 서양 문화는 그리스 문화에 크게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리스 문화는 실용적이기보다 학문적인 경향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온 세상을 이끄는 것으로 묘사된 짐승이 주로 표범의 모습이며 표범이 그리스 왕국을 나타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3장 하늘로 오르는 계단

해가 짧아지고 날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이 행복한 골짜기에 들이닥칠 매서운 추위를 나려면 벽난로에 땔 장작을 쌓아 두어야 할 때였습니다. 집주인이 부지런히 장작을 패고 있는데, 곁눈으로 작은 신발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한 사내아이가 그의 동작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그것보다 빨리 팰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의 당돌함이 재미있다는 듯 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해요.” “그런 아빠를 두었으니 너는 참 복이 많구나.”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잘못할 리 없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대단한 사람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단순한 상태에 머물렀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끊임없는 비교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함께 배우는 아이들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제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비교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았기에 그 무렵의 학교 기억 대부분은 정겹게 남아 있습니다. 만들기와 놀이와 활동이 많았고 대체로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앞당겨져 듀라셀 왕국의 쌉쌀한 맛을 미리 보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일곱 살 때 저희 가족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고, 저는 곧 새로운 아이들 무리 속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금방 사귀었지만 고약한 녀석들도 만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체격이 제법 다부졌는데, 마른 아이 둘이 제가 자기들보다 살집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재미를 보기로 한 것입니다.

"뚱보", "뚱뚱이 앨버트", "돼지" 같은 별명이 기억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린 시절에 겪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런 일이 날마다 이어졌습니다. 영혼의 원수가 그 아이들을 이용해 제 값어치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등굣길에 저는 더는 못 견디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차에서 안 내릴 거예요. 학교 안 갈래요." "당연히 가야지, 얘야." "안 가요!" 차가 들어서자 그 위협적인 두 녀석이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지켜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저를 끌어내려 하셨습니다. 그 몇 분은 꽤 격렬했습니다. 저는 발버둥 치고 항의하고 소리 지르며 의자를 붙들었습니다. 그저 버릇없는 아이의 행패였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 제 정체성이 짓뭉개지고 있었을 때, 저는 저를 지키려고 필사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괴롭힘이 멈추었다는 것은 기억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미리 맛본 셈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드러나는 잔인함은 사탄의 비교 왕국의 원리가 날것 그대로, 아무 제어 없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보이는 뻔뻔한 이기심과 배은망덕에 종종 멍해집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이런

성향에서 저절로 벗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다윗의 자손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도 이 나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저 더 교활해지고 더 세련되어질 뿐입니다.

고등학교 중반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미 잘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학업의 신, 운동의 신, 외모의 신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돈의 신도 섬기고 싶었지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저에게 첫째가 되려고 애쓰라고, 성취하려고 애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승자만 받아들여지고 패자는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잘하려는 제 동기는 배우는 내용 자체가 즐거워서라기보다 일등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 믿음을 강화하는 영화들을 보곤 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어 어느 젊은 여성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으로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관계란 성취해서 얻는 것이고 그 여성은 친구라기보다 상품에 가깝다고 저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꿈꾸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호주 대표로 크리켓 경기의 결승 점수를 내는 꿈, 마지막 골을 넣는 꿈, 목숨을 걸고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하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이 꿈들이 제 가치 체계의 옷감이 되었습니다.

꿈꿀수록 저는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어려운 점은 그 목표를 진공 속에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했습니다. 친구도 원했지만 제 꿈이 먼저였습니다. 제 꿈이 위협받지 않을 때는 예의를 지킬 수 있었지만, 꿈이 도전받는다고 느끼면 그때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목표를 이루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과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셋 중 둘이면 나쁘지 않지요. 그러다 저는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일단 정상에 오르고 나니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며 제 소중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평판이라는 기대가 따라옵니다. 일단 평판을 쌓고 나면, 만약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끔찍한 일일 테니 저는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싸움은 한동안 계속되다가, 제 모든 목표에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배신당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인들을 충실히 섬겼는데 이제 그들이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코 지속되는 값어치를 줄 수 없는 체계 안에서 훈련받았고,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이 자주 보이는 격렬함과 파괴성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폭음과 약물로 도피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것이 흔히, 자기가 배운 방법으로는 결코 꿈을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눈에 결코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농구 경기를 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접전이었고 긴장이 팽팽했습니다. 제가 막고 있던 선수가 갑자기 골대로 파고들었고, 그가 공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저는 손을 뻗어 공만 깨끗이 쳐 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게도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파울!"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갑자기 제 안에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세상을 약속해 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이 지긋지긋한 체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심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코앞에 서서 입에 담기 힘든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끊어졌고 저는 조금도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코트에서 퇴장당했고 대회 출전이 금지되었습니다. 걸어 나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아까 완전히 이성을 잃었잖아. 너 통제력을 잃고 있어!" 제가 저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가 가는 방향에 의문을 품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을 찾도록 저를 이끄셨습니다. 저는 더 나은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의 원수도 그것을 알아채고, 담배를 끊을 때가 왔음을 직감한 흡연자가 도리어 두 배로 피우듯이, 저를 더 깊이 자기 증명 속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꿈이 흐려지면서 저는 물러나기 시작했고 꽤 침울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셔서 그 한심한 상태에 대해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십대 남자아이 방이 그렇듯 최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해 두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 공간에 들어와 이래라저래라 하시는 데 격분했습니다. 저는 입속으로 험한 말들을 쏟아 내고는 저를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가가시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 어머니를 아주 모욕적인 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모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제 친구들처럼 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머니에 대해 그런 말을 내뱉었을 때, 저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존엄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데 충격을 받았고 우울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좋다는 지점에 이르고 있었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저는 제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넓은 길이 술과 여자와 노래로 가득 찬 아가리를 벌리고 저를 손짓해 불렀습니다. 다른 쪽에는 성경이 제시하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불타는 혜성처럼 넓은 길로 뛰어들 것인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냐 마귀냐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성경의 참된 예수님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오래 있던 책 한 권을 읽기로 했습니다. 『정로의 계단』(Steps to Christ)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제 필요에 딱 맞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겠다는 굶주림과 절박함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늘로 오르는 계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더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 앞부분에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 받아들인 거짓말을 몰아내려고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오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비를 만난 메마른 땅처럼 저는 그 말을 들이켰습니다. 저자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까지 그분을 따라가 보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그려 보는 동안, 갑자기 저는 실제로 서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 위의 그 모습이 매우 실제처럼 느껴졌고, 그분이 저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하는 저의 절박한 필요를 아시기에 거기 달려 계시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가장 좋은 친구로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이 저를 하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동안 저를 구원하려 하시는 그 마음에 엄청난 감사가 밀려왔고, 여러 해 지고 있던 죄책과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의 무게가 등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평화가 제 마음에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저는 기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윗의 자손께서 제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것을 대낮의 빛으로 꿰뚫으셨습니다.

14장 같은 신들, 다른 이름들

방 안은 활기와 웃음과 음악과 젊음의 들뜸으로 가득했습니다. 방 앞쪽에는 큼직한 스피커 두 대가 최신 록 밴드의 음악을 쏟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려고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저는 방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았는데, 신이 난 십대 한 명이 최신 영화의 한 장면을 실감 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그 분위기에 젖어 보려 했지만 무엇인가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뒤뜰 테라스로 나가, 꿈에 그리던 여자를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무용담을 늘어놓는 젊은 '로미오'들 틈에 끼었습니다. 그것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음악이 거슬리기 시작했고, 방 건너편을 보니 틀어 놓은 영상에 제가 몹시 불쾌하게 느끼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물열차처럼 생각 하나가 저를 들이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싫다!

제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내달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제가 아는 즐거움의 정의였는데, 이제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가 제 마음을 붙들어 그것을 즐길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어디선가 깊은 구렁에서 끔찍한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 즐거운 인생은 끝났고 다시는 재미있게 지낼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집 앞으로 달려 나가 잔디밭에 서서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예수님과의 '다메섹 도상 경험'이 있고 몇 주 뒤였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토록 큰 평화를 느껴 본 적이 없었고, 성경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들이켜며 한 번도 알지 못한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셨을 때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문득 제 말투 가운데 어떤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제 농담 가운데 어떤 것은 꽤 저속하며, 제 생활 방식의 어떤 부분은 제가 이제 가는 새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 나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나라에 가서 언어와 관습을 처음부터 배우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나라의 주님을 사랑했기에 배우고 싶었지만, 저는 다른 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이었고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터였습니다.

그날 밤 그 모임 전까지는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으신 뒤로 저는 그분이 부르실 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괜찮다고 여기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런 삶에서 저를 불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을 몰랐기에 저는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 그만큼 좋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는 참 쉽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돌보시리라고 신뢰하기로 했고, 제 감정보다 그분을 신뢰하는 편이 낫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저는 몇 주 동안 그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과의 특별한 가까움을 느꼈고 그 느낌은 오늘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듀라셀의 씨앗을 제거하도록 저를 도우실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성과와 성취를 제 가치 체계의 중심에 두던 그 삶의 철학을 뿌리 뽑도록 도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녀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빛에 눈을 고정하고 겸손히 우리 구주의 발자취를 따라 새 나라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함께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우리를 감싸는 하나님의 감미로운 영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옛 삶에서 온 또 다른 영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며 기도하는 동안 한 생각이 저를 쳤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기도할 수 없어. 저들은 참 유창하구나." 제 마음은 그 생각에 붙들린 듯했고, 기도 순서가 저에게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곧 제가 주목받게 되고 모두가 제 기도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도 모임이지 저에 대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듀라셀의 저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려 하고 있었는데도, 제 옛 삶의 원리는 여전히 저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도에서의 제 성과를 문제 삼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성경적으로는 유치원도 졸업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배우는 것은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저를 찔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구절을 찾지? 나는 절대 저렇게 못 할 거야." 저는 맞는 책과 절을 찾느라 허둥댔고, 모두가 저를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꼴찌가 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남과 자신을 비교하도록 오랜 세월 훈련받은 것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여정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제 말투와 생활 방식에 대해 저를 깨우치시는 것은 비교적 쉬웠지만, 듀라셀의 촉수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를 제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정을 이어 가면서 저는 성경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저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신 제 영웅을 알아 가는 가장 좋은 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그저 좋았고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옛 삶이 저를 낚아채려고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덜 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지식이 늘면서 말할 자신감이 생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작은 모임을, 이어서 더 큰 모임을 맡아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저와 주위 사람들에게 큰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관계로 얻는 값어치에서 성과로 얻는 값어치의 발판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알아채지 못하게 일어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돌아보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그것은 같은 신들에 다른 이름이 붙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성경을 믿으면서도 세상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방탕하게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로 값어치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서**
학력	성경 지식
운동 능력	설교 능력
예술 능력	음악 봉사
직업의 지위	교회 직분
소유	영적 은사
외모	교회 패션쇼
국적	보수 / 진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의 예수님과의 동행이 듀라셀의 음험한 힘에 납치당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둘러보면, 세상에서 벗어나려 했던 그 신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찾아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신들은 빛의 옷을 입었고 우리는 그들을 좋은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교회 안의 분노와 쓴 마음과 다툼입니다. 교회에서 경건해 보이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뒤에서 한 말이

전해져 여러분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반대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연주가 수준 미달이라는 말을 듣고 다른 교회로 옮겨 간 반주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정한 정통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교회에서 몰아내려고 이리저리 순찰하는 교리 경찰은 어떻습니까? 예배 위원회를 장악하여 새로운 예배 방식을 모두에게 강요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알 바 아니라는 '진보파'는 어떻습니까? 목록은 끝이 없고, 우리 영혼의 큰 원수는 우리를 이 장단에 계속 춤추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전히 자기 나라의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탄의 나라의 원리에 절뚝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교회 안의 심한 분열과 그리스도인다운 사랑의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관계를 대하시듯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대한다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은 사랑이 있을 것이고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훨씬 더 마음을 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경험에서 일어난 이 은밀한 신들의 이동이 교회의 공동체적 경험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기독교회에는 온갖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흥미로운 점 하나는, 판테온에 있던 이교 신들의 상당수 조각상이 기독교회로 옮겨졌고 그 이름이 모세, 다윗, 베드로 같은 성경 인물의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들, 다른 이름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것은 여전히 이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사도적

진리에서 떠난 교회의 배교를 공격하는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원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려 하기 전에 우리 눈의 들보를 먼저 처리합시다.

그리스도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이들, 곧 그분의 제자들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권력과 자리의 문제가 자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마태복음** 18:1

제자들이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이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에 들떠 있었고 열정적이었으며, 더러는 그분을 위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관계에서 기도의 성과로 옮겨 갔듯이, 제자들도 메시아와의 관계에서 그분의 새 나라에서의 자기 자리로 옮겨 갔습니다.

>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복음** 10:35-37

자리와 지위의 신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우고 있던 새 나라의 원리를 얼마나 압도했던지, 그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옛 나라의 원리를 놓지 못하는 그들의 거듭된 실패에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원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우리가 깨닫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옛 원리에 지배당할 때 벌어지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마가복음 10:41**

옛 나라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두면 언제나 다툼이 따라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일은 다른 제자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너희보다 낫다"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거의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자라 온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려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2-45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영원히 울리게 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되고 싶거든, 남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남을 지배하고 권세 부리기를 즐기며 누가 윗사람인지 보여 주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그 정신이 교회를 지배할 때가 많아, 여러 성도가 자기 뜻과 권위를 교회에 강요하려 합니다. 십자가 이후 이천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아직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원수가 어떻게 그토록 쉽게 우리를 옛 사고방식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불안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자기 증명으로 유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어디에서 오는지 기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돌을 빵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물리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듀라셀 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끈질기게 달라붙는지에 대해 저는 몹시 놀라운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본 가장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삼 년 넘게 지내시며 하늘 나라에 대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이 여전히 옛 삶의 원리에 지배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1)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23)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4)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복음 22:20-24**

우주가 본 가장 위대한 사랑의 증명을 바로 앞둔 그 밤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고 그분의 나라를 누구보다 많이 알던 이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큰가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겪으신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도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서로 밀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서 듀라셀의 원리에 지배당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원리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기중심의 원리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그분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15장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앞에 놓인 가능성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합니다. 어느 큰 제조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이 공들여 만든 특별한 설계에 관심을 보이며, 그것을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동네의 아담한 식당에서 점심을 하기로 합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에 여러분은 긴장한 채 주위를 둘러보며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바꾸어 줄 그 사람을 찾습니다. 마침내 그가 도착하고 여러분은 힘차게 악수를 나눈 뒤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서로 알아 가려고 상대는 여러분의 가족과 사는 곳과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묻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다만 바로 뒤에 앉은 남자가 수프를 후루룩거리는 데 도가 튼 사람이라는 점만 빼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거슬립니다. '예절을 좀 배워야 할 사람도 있군.' 속으로 생각하고는 신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털어 냅니다. 잠재적 사업 동반자와의 대화는 잘 흘러가고, 설계의 부가적인 장점을 한창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뒤에 앉은 남자가 식탁의 수저가 흔들릴 만큼 요란하게 트림을 합니다. 모든 시선이 예절이라고는 도무지 없어 보이는 이 별난 사람에게 쏠립니다. 방 안은 킥킥거림과 참는 웃음, 그리고 경악과 역겨움으로 가득 찹니다. 마침내 식당 주인이 나와 그에게 나가 달라고 하며, 그런 부류는 이 식당에 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같은 사람이 중국 문화가 반영된 식당에 앉아 있었다면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주인 내외는 여러분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으면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하려 하거나 식사 자리에서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꽤 무례하다고 여겨집니다.[1]

어느 문화, 어느 세계관에서 왔느냐에 따라 같은 행동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라는 두 문화를 볼 때에도 이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내건 수많은 무리를 살펴보면, 하나의 기초 위에 어떻게 이토록 많은 모순이 존재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에는 문화의 이동과 세계관의 이동이 따릅니다. 앞 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취와 지위로 훈련받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의 말씀을 읽는 법을 가르치시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역사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과 이단과 다툼은 성경을 하늘의 틀, 곧 정당하고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둔 틀이 아니라 듀라셀의 틀로 읽은 데서 곧바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사와 나누신 대화에서 이 점을 짚으십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더 깊은 문제로 들어가시려고 물으십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2]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읽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읽느냐, 곧 읽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이 땅의 듀라셀에서 하늘의 관계로 여정을 떠나려는 모든 사람에게 핵심이 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영생에 관한 물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물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차지한 자리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값어치를 나타내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반면에 하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존중과 존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대화를 따라가 보면 이 율법사는 성경을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옳은 대답을 내놓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3]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나 그 말에 담긴 온전한 함의를 깨달은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물으며 그 뜻을 비틀려 합니다. 성경의 뜻은

단순하지만, 듀라셀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굽니다. 옛것을 놓고 새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기 없는 그리스도인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으면서 사탄의 나라에 따라 살고, 그 결과는 혼란과 좌절과 악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가 구원의 문제에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은혜로 힘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십계명과 조화를 이루어 살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십계명을 듀라셀의 틀에서 대합니다. 곧 십계명을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된 관계에 대한 묘사로 보는 대신, 구원이라는 목표를 얻으려고 수행해야 할 항목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그리고 더 흔하게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는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해 버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의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지키려 애쓰든 지키지 않으려 하든, 문제는 여전히 관계가 아니라 성과입니다. 이 두 무리 모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과의 믿음에 근거한 관계라는 맥락에서 십계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과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 무리에게는, 머지않아 그들이 섬기는 신 또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신이 됩니다. 여기에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구가 더해지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문자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 학자와 교사와 신자가 나타나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율법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을 내놓고서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되물었듯이, 오늘날 많은 학자가 "예, 우리는 엿새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란 어떤 종류의 날입니까?"라고 말합니다. 악함은 언제나 성경을 자기에게 맞게 비틀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따라 삽니다.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성경의 분명한 진술에 교묘한 물음을 던지는 법을 배운 사람은, 성경이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하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과 더불어 동성애를 그리스도인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쉽게 나아갑니다. 이런 개념은 하늘 나라에 낯선 것입니다. 값어치는 언제나 자리가 아니라 관계에서 옵니다.

힘과 자리와 성과의 원리에 맞추어 비틀리고 왜곡된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더 열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분명히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나온 그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그분 나라의 원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주

1. http://www.chinawestexchange.com/Chinese/Culture/customs.htm
2. 누가복음 10:25,26
3. 누가복음 10:27

16장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섯 살 난 아들과 저는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깊고 뜻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뭐, 제 귀한 아들의 경험이 허락하는 만큼 깊은 대화였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착실히 돌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인가 상당히 심오한 것이 나올 참이라고 느꼈는데, 이윽고 그것이 나왔습니다. "아빠, 아빠가 어떤 때는 대장을 하고 내가 어떤 때는 대장을 하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아들아, 그거 참 흥미로운 제안이구나." 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제안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럴듯한 이유를 생각해 내려던 참이었는데,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 둘 다 곤란해질 판이었습니다. "음, 아들아,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 주는 방식이 아니란다." "그런데 왜 아빠는 늘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해요?" "아들아, 예수님께서 아빠에게 너를 그분을 위한 강한 청년으로 가르치라고 부탁하셨단다. 그분이 아빠의 대장이시니 아빠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좋겠지."

자녀를 기르는 일은 그야말로 배움의 연속입니다. "아들아, 먹을 때는 앉아 있으렴." "아, 불공평해요!" "얘야, 장난감 좀 치워서 제자리에 두렴." "아, 엄마, 나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단 말이에요." "아들아, 잘 시간이다." 울고 칭얼대고 소리 지릅니다. "아빠는 지금 안 자잖아요. 나는 왜 자야 해요?"

이 모든 규칙과 규정이라니! 부모는 늘 도깨비 같은 존재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이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소화가 나빠지지 않도록 식탁에서 가만히 앉아 천천히 먹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는 자라서 더 정돈되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도록 단정하고 깔끔한 습관을 배우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왜 잠을 충분히 자서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왜일까요? 인생의 함정과 위험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가져와 우리의 그리스도인 여정을 설명합니다.

>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갈라디아서 4:1**

바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훈련해야 하지만, 듀라셀의 본성을 지닌 아들은 그 모든 훈련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많은 것이 아들의 본성과 어긋나고, 종살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고된 일일 때가 많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많은 일을 막으실까? 나는 노예 같아. '아들아, 이것 해라, 아들아, 저것 하지 마라.' 불공평해!"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시며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를 힘들고 까다롭게 여기며 자주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토록 제약이 많아 보일까?" 또한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린아이로, 그저 종으로 머물기를 만족스럽게 여기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하고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맏아들의 감정에 삼켜질 위험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삶의 많은 곤혹스러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에 대한 물음에서 어떻게 놓여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그분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격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참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규칙과 규정은 더 이상 즐거움을 막는 제약과 울타리로 보이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유업을 받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는 자유의 문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5)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6)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7)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을 통하여 상속을 받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3-7**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도록 우리를 확보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탄의 나라의 종살이에서 놓여납니다. 우리는 듀라셀의 폭정에서 벗어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딸로 굳세고 존귀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하고 부르짖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안전하여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면 환영받을 뿐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깊이 원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실 때 환하게 빛나는 어린아이의 흠모로 돌아가셨습니까? 이 자유를 경험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내일 해고 통지를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사는 종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유업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간구를 아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고 확신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자라게 하고 듀라셀의 종살이를 끊게 하려는 것입니다.

6장에서 우리는 인류를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되돌리시려는 하나님께서 마주하신 엄청난 과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항목을 다시 적어 봅니다.

1. 인류가 자기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올바로 깨닫도록 지혜를 주는 방편,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길.
2. 하나님의 성품과 나라에 대해 그들이 잘못 알고 있음을 보여 주고, 그분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 줄 길.
3. 그들의 죄책과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정체성과 값어치를 회복시킬 길.
4. 그들의 목적의식, 곧 존재의 이유와 운명을 되찾을 길.
5. 위의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내놓은 것이므로, 선택하고 결정할 시간을 벌어 줄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6. 이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반역을 못 본 척하고 괜찮다고 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들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가 온전히 그들에게 떨어지도록 두지 않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한 일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려면 그 선택의 결과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 여섯 가지 과제 모두에 해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누가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없애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훨씬 깊습니다.

지금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듀라셀에서 풀려난 여러분의 해방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그분이 여러분을 흠모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책과 원망과 교만과 쓴 마음을 그분께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그분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흘러넘치도록 하십시오.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하실 수 있습니다. 듀라셀에서 벗어나는 비밀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바벨론의 멸망

그것은 번개처럼 들이쳤습니다. 독일 기갑 사단이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들판을 가로질러 내달렸고, 하룻밤 사이에 두 나라는 나치 전쟁 기계의 무쇠 주먹에 단단히 붙들렸습니다. 점령당한 나라에서 사는 일은 사람을 시들게 하는 경험입니다. 제 아버지는 네덜란드 북부 아선이라는 도시에서 그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남자들은 독일 전쟁 기계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밀고자들은 언제든 그들을 무서운 비밀경찰에 신고할 태세였고, 어느 시각에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사랑하는 이가 끌려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치 정권은 듀라셀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모든 경쟁자를 없애고 두려움으로 다스리며 악마 같은 만족감으로 힘을 과시하는 통제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원을 빼앗기고 고갈된 채 억압의 사슬에 지친 네덜란드는 1944년 겨울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땔감으로 뜯겨 사라져 버릴까 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시에서 수천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었습니다. 이 악몽은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

마침내 독일군이 물러갔습니다. 다리를 폭파하고 탄약을 파괴하며 가능한 한 많은 파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거리에서 춤을 추었고 연합군 병사들이 식량 배급을 나누어 주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끝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침내 자유였습니다!

가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직전에 이 통제하고 불안하며 질투하고 무가치한 정신이 멸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힘을 과시하리라고 밝힙니다. 요한은 그것을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 내가 바다 모래 위에 섰더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1**

이 짐승은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큰 힘과 권세를 받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의 권세에 경배하며 굴복합니다.[1] 이 짐승 같은 권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거스르며 서 있습니다. 그것은 경배를 자기에게로 끌어오려 합니다.

이 짐승이 온 세상을 그토록 쉽게 설득해 따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듀라셀 건전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 쓰는 언어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루고 해낸 것으로 정체성을 찾도록 부추기며,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 피 없는 우리의 제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그에 맞추어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세상 대부분은 이미 이 짐승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자유의 원리를

버리고 두려움과 강제를 통한 세계적 통제로 돌아갈 때,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린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짐승 같은 권세에 굴복하지 말라고 세상에 경고하는 절박한 마지막 소식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세 가지 기별의 형태로 옵니다. 첫째 기별은 인류를 불러 세우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가리키며, 가인의 제물은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을 벌어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린양의 피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2]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일깨우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이런 말로 담으십니다.

> 또 다른 둘째 천사가 뒤따라 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그 도시는 자기 음행에서 생긴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14:8**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성을 세운 이가 니므롯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니므롯은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더라.”[3] 니므롯은 자기 나라를 세운 것으로 기록된 첫 사람입니다. 또한 니므롯이 어느

시점에 자기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참으로 기능을 잃은 가정입니다. 니므롯이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니므롯의 가정은 가족 관계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므롯은 가정에서의 안정이 너무나 부족했기에,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성경은 인류의 족보를 열거합니다. 사람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로 밝혀집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가족 관계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니므롯은 힘센 사냥꾼이자 힘센 통치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그가 여호와 앞에서(여호와를 대적하여) 힘센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여호와를 대적하여) 니므롯 같은 힘센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이라 **창세기 10:9-12**

불안에 떠밀린 니므롯은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성을 쌓기 시작했고, 이어서 군대를 길러 이웃 가족 부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안목 있는 역사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전 통치자들의 권위는 혈연의 감정에 근거해 있었고, 우두머리의 우월함은 부모의 다스림을 본뜬 것이었다. 그와 달리 니므롯은 영토의 주권자였으며, 사람들은 오직 그 땅의 거주민이라는 이유로 다스림을 받았고 인격적 유대와는 무관했다. 이제까지는 확대된 부족, 곧 가족, 곧 사회가 있었을 뿐이었으나, 이제는 국민, 곧 정치적 공동체, 곧 국가가 있게 되었다.[4]

오늘날 거의 온 세계가 니므롯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오늘의 정부는 부족적이고 유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영토적입니다.

니므롯이 이 정치적 국가 체제를 세우려고 밟은 단계를 눈여겨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체제에 그가 처음 세운 성의 이름, 곧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바벨론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 본질을 보십시오.

1.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소원해진 아이들에게서 시작됩니다.
2.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불안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인정을 구합니다.
3. 이 인정에 대한 갈망은 흔히 그들을 공허와 무가치함을 상쇄하려는 필사적인 수단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그토록 중독성 있게 만드는 비밀 재료입니다. 우리 가운데 쓸모없다는 느낌에, 또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남에게 증명하겠다는 결심에 시달려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으며 더 애써 봐야 소용없다고 느껴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힘겨루기에 휘말려 자기를 방어하려고 또는 자기만의 작은 나라를 넓히려고 화난 말이나 날 선 말을 듣거나 내뱉어 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이 이 잔에서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도 참으로 바벨론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벨론의 멸망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51장 8절에서 곧바로 온 것이며, 그 맥락은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길 잃은 양, 곧 미혹되어 자기 쉴 곳을 잊어버린 양으로 묘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자기의 참된 집, 곧 쉴 곳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약속을 하십니다.

>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켜 놓아주지 아니하거니와 (34)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예레미야 50:33,34**

그리고 51장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끊침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8)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울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9)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사무쳤음이로다 (10)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예레미야 51:6-10**

이 장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미혹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그들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심판과 정죄의 선언인 동시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자유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담긴 바벨론의 멸망은 영적 이스라엘을 불안과 무가치함에서, 그리고 우리를 죄짓게 몰아가는 통제의 정신에서 놓아줍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무가치함은 쓸려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섭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엘리야의 기별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 기별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 4장 6절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기별의 능력은, 우리가 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참으로 믿을 때 풀려날 것입니다.

바벨론과 그 듀라셀 원리를 버리십시오. 더 이상 종으로 남지 마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아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자유합니다.

주

1. 요한계시록 13:2,7
2. 요한계시록 14:6,7
3. 창세기 10:10
4. A. T. Jones, Empires of the Bible,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1904) p 51. '앞에서'로 옮긴 말은 '대적하여'로도 읽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이 오늘도 마음의 무게와 싸우고 있습니다.
버텨 낼 힘은 점점 약해지고, 많은 이들이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생각은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는 그 아픔에 이렇게 권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아껴 주라",
"너는 특별하다고 되뇌라."

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축복을 완전히 비켜 갑니다. 부모와 같은 분, 존경하는 어른이 나를 향해 축복의 말을 건네주는 것.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말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입에서 듣는 것. 이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많은 사람의 눈을 가려 다른 데서 값어치를 찾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의 음성에 귀를 닫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